

교회 건축에 있어서 성경적 믿음이 끼치는 영향 연구

덕장교회 사례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 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김문년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6년 5월

Copyright © 2016 Munyeoun Kim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Biblical Faith in Church Building Construction: A Case
Study of Dukjang Church, Gyeonggi-do, Korea

Munyeoun, Kim

Dukjang Church, Gyeonggi-Do, Korea.

In the course of pastoral ministry, we encounter a time when church building construction should be carried out. Some churches do it in peace but others don't. It is true that we need financial resources for building churches. But if we try to do it only with or by money, there will be no difference between building churches and any other building constructions. We should build the church by fa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faithful way of building churches based upon the biblical foundation. This study used the method of "Tong-Bible" pioneered by Byoung-ho Zoh who coined the term, "Tong." Using the method of Tong, this study shows the history of temples in the Bible. The history of temples is the history of God's presence. The location and shape changed according to where God dwells : the age of patriarchs (altar), the age of desert (tabernacle), the age of kings (temple), the age of captives (prophecy on the new temple), the age of Jesus (Jesus himself is the temple), the age of Apostles (church : heart-temple and the worship community).

If we magnify the history of temple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God, it will be narrowed down on the faith of David and Paul on building churches. David's faith on church building is loyalty to A Kingdom of Priests. In contrast to it, Paul's faith is loyalty

to The Kingdom of God. The church building should be an opportunity for building up the church by Biblical faith. Biblical faith is the faith of fully trusting in God at all circumstances. This is what God expects us to have.

Dukjang Church completed church building construction by such faith in spite of difficult situation. In short, Dukjang Church not only built a church but also built up church members in faith one by one and led them to understand the Bible more profoundly. As a result, the church united in one in despite of some difficulties and finished church building construction by grace.

국문초록

교회 건축에 있어서 성경적 믿음이 끼치는 영향연구: 덕장교회 사례 연구

김문년

덕장교회, 경기도

목회를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교회를 건축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평안하게 잘 건축하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런 아픔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연구를 시도하였다.

교회를 평안하게 건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전건축에 대한 성경적 믿음으로 건축해야 한다.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돈으로만 짓는다면 그것은 일반 건물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교회 건축은 성경적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통(通, Tong) 성경’ 이란 방법으로 연구를 도하였다. ‘통’ 방법이란 말을 학문적으로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조병호 박사인데, ‘통’ 연구 방법은 ‘전체를 보면서도 부분을 보고, 부분을 보면서도 전체를 보는 연구 방법’ 이다.

본 연구는 II장에서 ‘성경에 나타난 성전의 변천사’ 를 살펴보았다. 성전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임재하시느냐’ 에 따라 성전의 장소와 모양이 바뀌었다. 즉, 족장시대(제단), 광야시대(성막), 왕정시대(성전), 포로시대(미래의 새 성전 예언), 예수시대(예수님 자신이 성전), 사도시대(교회: 개인의 마음 성전, 또는 교회공동체)이다. III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믿음’ 을 살펴 보았다.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성전의 변천사를 확대하면 성전건축에 대한

다윗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으로 압축된다. 성전건축에 대한 다윗의 믿음은 ‘제사장 나라(A Kingdom of Priests)에 대한 충성’ 이었고, 성전건축에 대한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 새 성전에 대한 충성’ 이었다. 그리고 성전건축에 대한 또 하나의 믿음은 ‘통성경적 믿음’ 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이고, 또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통성경적 믿음’ 이다. 교회 건축은 위에서 언급한 이 세가지 믿음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 건축이다. 그럴 때 교회 건축이 평안하고, 교회의 축제가 되고,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다.

덕장교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 믿음으로 교회를 건축하였다. 또 건물만 지은 것이 아니라, 건축하는 동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커졌다. 그 결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은혜 가운데 교회 건축을 잘 마치게 되었다.

목 차

감사의 글	x
표 목차	ix
I. 서론	1
연구의 목적	1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6
연구의 범위와 한계	8
용어의 정의	9
논문의 구조	9
II.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성전 변천사	11
족장시대 이전	11
족장시대: 제단	13
광야시대: 성막	17
왕정시대: 건물성전-예루살렘성전	22
포로시대: 미래의 새 성전 예언	26
예수님 시대: 예수님 자신이 성전	35
사도시대: 교회	43
III. 성전 건축에 대한 성경적 믿음	48
성전건축에 대한 다윗의 믿음: 제사장 나라의 성전에 대한 고찰	49
성전건축에 대한 바울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에 대한 고찰	63

성전건축에 대한 통성경적 믿음: 성경에 나타난 통성경적 믿음 고찰	79
IV. 프로젝트 실행과정: 덕장교회의 건축	94
무형교회 건축	95
유형교회 건축	101
결과	110
V. 결론	122
부록	126
참고 문헌	141

표 목차

<표1> 이방 종교와 성경에서 나타난 예배의 차이	15
<표2> 왕정과 제사장나라의 제도 대조	51
<표3> 건축 전·후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믿음의 성장)	115

감사의 글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마무리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 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 번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바른 목회자 무엇인지 깨우쳐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 이 논문 작성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지도해 주신 조병호교수님, 김영래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신 덕장교회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 드리며, 마지막으로 공부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격려해 주신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5월

김 문 년

제 I 장

서 론

연구의 목적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지 130년이 지났다. 1982년에는 한국 교회의 수가 7,253개에 달했고,¹ 30년이 지난 현재는 55,617개의 교회로 성장했다.² 한국 교회의 수적 성장은 교회 건물의 증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또한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 다시 건축해야 되고, 또 교회성장에 따른 건축이나, 교회 개척이나 선교지에 교회 건축 등 교회 건축은 피할 수 없다.

교회 건축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교회 건축으로 인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를 건축하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재정적 위기, 성도간의 의견 충돌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목회자가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사임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회 건축에 따른 문제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색해야 하는 것은 문제를 예방하거나 야기되

¹ 1982년 문화공보부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69개 교단, 7,253개의 교회, 성직자 33,851명, 신도수는 7,637,010 명이었다. 문화공보부, *종교단체 현황*, 23. 원광기, “교회 건축의 신학,” (신학박사 학위논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과 풀러신학대학교 공동 목회학박사과정, 1984), 1쪽에서 재인용.

² 2012년 한기총 가입 69개 교단의 교회 수는 5만5617 교회이다. 이는 2007년 한기총 가입 62개 교단의 교회 수 4만9434곳보다 6,183곳이 늘어난 수치다. 한국교회 전도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교회 수가 점점 늘고 있다. 유영대, “한기총 5년간 6000 교회 늘었다”(국민일보 2012년 1월 24일).

는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 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교회 건축에 대한 갈등은 다양한 유형으로 표출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간혹 발견되는 교회 건축에 대한 연구는 건축 설계사들에 의한 공간 배치나, 각 공간에 대한 신학적 의미 부여와 같은 건축학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일부 신학자들의 접근도 있지만 건축 설계사의 연구와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현실을 통감하고 본 연구는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교회건축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또한 교회 건축이 교회의 성장과 신앙 발전의 계기가 되는 길을 찾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교회 건축은 교회의 기쁨이요, 잔치요, 축제요, 기적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교회 건축이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적 믿음으로 건축해야 된다. 교회 건축을 위한 충분조건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아니라 성경적 믿음이다. 혹자는 교회 건축에 가장 우선순위를 재정적인 뒷받침에 둔다. 그러나 교회 건축은 일반 건축과 달리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과정의 일부다. 황금만능주의에 젖어 교회 건축에 있어서 재정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치부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우려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회 건축은 교회 공동체를 교회의 핵심 과제인 성경적 믿음으로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건축 현장은 교회 안에서 평안과 축제,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의 여러 가치 중 하나가 성경적 믿음이고, 또한 교회 건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역시 성경적 믿음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개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 특별히 성경적 믿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³

³ 연구자가 섬기는 덕장교회는 2004년 말 재정이 780만원 밖에 없었고, 교인은 장년 130명 정도 출석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연건평 238㎡ (72평)의 교회를 연건평 4,942㎡ (1,495평)의 교회로

선행연구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회 건축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성경적이나 신학적 접근보다 건축학적 접근이 많다.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연구도 일부 있지만, 교회의 각 공간이 갖는 신학적 의미, 공간 배치, 건축양식과 같은 연구였다. 물론 이런 연구도 필요하지만, 교회 건축의 당위성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교회 건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시춘의 *교회 건축의 이해*이다.⁴ 저자는 이 책에서 “교회 건축을 연구하려고 했지만 건축계나 기독교계 모두, 교회 건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건축가들과 교회가 함께 읽을 수 있는 교회 건축 지침서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한다.⁵ 그래서 책을 집필하면서 “교회 건축이란 ‘교회’와 ‘건축’의 만남이어야 하는데, 교회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신학자가 아닌 필자로서는 무리였으며 매우 조심스런 일이었다”고 한다.⁶

정시춘은 교회 건축에 대해 신학적인 측면보다 건축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했다.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모든 활동, 즉 “‘기능’을 담기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라며⁷ “편리하고 쾌적한 건축(기능성), 안전한 건축(내구성과 안전성), 아름다운 건축(예술성), 경제적인 건축” 측면

건축하였다.

⁴ 정시춘, *교회 건축의 이해* (서울: 발언, 2004).

⁵ Ibid., 5.

⁶ Ibid.

⁷ Ibid., 27-28.

에서 접근하고 있다.⁸ 건축의 속성으로는 “문화로서의 건축, 환경으로서의 건축, 건축의 시간성, 건축의 성장성, 건축의 사회성, 건축과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⁹

교회의 기능별 특성과 건축 공간 계획으로는 “예배공간, 교육공간, 친교공간, 봉사공간, 행정사무 공간, 기타공간, 교회 건축 공간 설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¹⁰ 이 책은 성서적, 신학적 측면보다 건축설계사 입장에서 쓴 교회 건축학 연구서이다.

둘째, 성공회 사제인 이정구는 그의 저서 *교회 건축의 이해*에서¹¹ 교회 건축물의 각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신학적인 접근을 했다. 즉, 예배공간, 문, 통로, 벽과 창, 천장과 지붕, 공간배치, 교회 안의 납골당 설치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왜 건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셋째, 김순환은 “예배공간의 예배 신학적 의미와 실제”라는 논문에서¹² “교회 건물과 내부의 성구 배열 및 설치 등, 이른바 공간에 관해 예배신학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¹³ 그래서 예배와 예배 공간의 밀접한 상관관계, 예배 공간을 위한 원리와 그 실재를 다루었다.¹⁴ 결론적으로 교회 건축과 내부 구조 및 성구 배열 등, 소위 교회의 공간은 그 자체가 특정의 메시지가 있으므로 실용적인 측면만

⁸ Ibid., 27-41.

⁹ Ibid., 41-50.

¹⁰ Ibid., 232-235.

¹¹ 이정구, *교회 건축의 이해* (과주: 한국 학술정보, 2012).

¹² 김순환, “예배 공간의 예배신학적 의미와 실제,” 207 *교회성장* (2010), 40-47.

¹³ Ibid., 40.

¹⁴ Ibid., 41-47.

아니라 예배 신학적 성찰에 기초하여 준비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 공동체에 더 효과적인 공간이 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¹⁵ 이 역시 예배 공간에 대한 연구이다.

넷째, 이은석은 “아름다운 교회 건축의 미학”이란 논문에서, 좋은 교회 건축을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¹⁶ 첫째는 진실성인데, 미적 감각과 실용성의 조화이고, 둘째는 절제인데, 건축 규모, 재정, 진행과정 등 모든 면에서 욕심내지 말고 적당하게 절제하며 건축해야 한다고 한다.¹⁷ 또 교회 건축은 교회의 본질을 담은 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아름다운 교회 건축물의 요소로는 단순성, 절제, 조화가 필요하다고 한다.¹⁸

다섯째, 원광기의 “교회 건축의 신학에 관한 연구”이다.¹⁹ 원광기는 잠실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 건축의 동기, 위치선정, 설계의 문제, 교회 건축의 타당성에 대해 고민하며,²⁰ 교회 건축의 정의와 교회건축 형태의 역사적 고찰, 잠실교회의 건축 설계, 교회 건축을 위한 준비 및 절차에 대해 언급한다. 이 논문은 설계만 끝낸 상태에서 쓴 것이라, 건축과정과 완공에 대한 내용이 없다.

여섯째, 이철웅의 “성전 건축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가 교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이다.²¹ 저자는 청운교회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접근성’에 초점을

¹⁵ Ibid., 47.

¹⁶ 이은석, “아름다운 교회 건축의 미학,” 207 *교회성장* (2010.9), 48-55.

¹⁷ Ibid., 48-49.

¹⁸ Ibid., 49-55.

¹⁹ 원광기, “교회 건축의 신학.”

²⁰ Ibid., 1.

²¹ 이철웅, “성전 건축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가 교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청운교회를 중심으로 -,” (목회신학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두고 교회당을 건축했는데, 건축 후 교회당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교회 건축의 선교적 기능과 사회 봉사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²²

일곱째, 번역서로는 James F. White 와 Susan J. White의 *교회 건축과 예배 공간*이 있다.²³ 이 책은 교회 건축을 건물의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었다. 내용을 보면 1) 신앙 공동체를 위한 장소, 2) 말씀의 예배를 위한 장소, 3) 주님의 만찬을 위한 장소, 4) 세례를 위한 장소, 5) 결혼 예식을 위한 장소, 6) 기독교 장례식을 위한 장소, 7) 교회 음악을 위한 장소 8)부속 공간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교회 건축에 대해 일부 신학적 접근도 있지만, 대부분 건축학적 측면에서 연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면서 ‘통성경’ 적 방법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통(Tong, 通)’이란 용어를 학술적으로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조병호이다. 그는 ‘통(Tong, 通)’에 대해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는 방법”이라고 한다.²⁴ 동양의 학문이 주로 전체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이라면, 서양의 학문은 특정 부분을 집중해서 세밀하게 보는 것이 특징이다. ‘통(通)’적 방법이란 동·서양의 학문 방법이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동서양의 조화를 이루어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하고,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병호는 ‘통’이란

²² Ibid., 58-124.

²³ James F. White, Susan J. White, *White, Building and Renovating for Christian Worship*, 정시춘, 안덕원 역, *교회 건축과 예배 공간*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²⁴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신학* (서울: 통독원, 2012), 60.

학문이 왜 필요한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방식이 중심을 해체하여 개체가 파편화 되는 것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꾸준히 주목받는 또 하나의 사고방식은 ‘결성’이다.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 작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생각은 중심성의 해체로 인해 개체가 다른 개체와의 상보성²⁵을 찾지 못하고 피상적인 조각에 그치고 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²⁶

조병호는 “ ‘통(通)으로 본다’ 는 것은 실체의 속성과 본질에 집중하는 서양의 사고방식 기반 위에, 본질적인 특징을 상황과 관계 안에서 찾아내는 동양사고방식이 조화를 이룬 것이다” 라고 한다.²⁷

그러므로, 통(通)이란 ‘부분’ 을 분석적으로 보는 것을 기반으로 각 부분이 어떻게 전체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²⁸ 즉,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이 전체와 부분이라는 두 가지 분야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며,²⁹ 어떠한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갖은 요소를 다양한 경로의 관점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³⁰

조병호는 통(通)신학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1) 하나의 대상에 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 2) 분리된 개체 속에 부여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성을 찾는 것, 3)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는 것, 4) Text와 Context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 5) 극단

²⁵ 상보성(相補性):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관계에 있는 성질. *네이버 국어사전*.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C%83%81%EB%B3%B4%EC%84%B1&where=midic&sm=msv_h ty (2016년 3월 7일 접속)

²⁶ 조병호, *통이다* (서울: 통독원, 2009), 89-90.

²⁷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신학*, 47.

²⁸ Ibid., 61.

²⁹ 조병호, *통이다*, 91.

³⁰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신학*, 46.

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것이라고 한다.³¹ 따라서, 이 논문은 위에서 제시한 통(通) 성경적 측면에서 ‘성경적 믿음이 교회건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와 한계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성전건축에 대한 성경적 믿음이 성전 건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는 데 있다. 그 외의 부분도 다루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적 믿음에 초점을 둔다.

둘째,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에 의존하되, 성전건축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여 자료의 한계성이 있음을 밝힌다.

셋째, 본 연구는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덕장교회의 건축으로 제한하며, 시간적으로는 ‘2005년 1월 - 2007년 9월까지’로 한다.

넷째, 본 연구는 교회사에 나타나는 교회 건축양식에 대해 역사적 고찰을 하지 않는다(예: 바실리카, 비잔틴 양식,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양식, 현대교회 건축 양식).

다섯째, 본 연구는 교회 각 공간의 신학적 의미, 각종 성구(聖具)의 의미는 다루지 않는다(예: 설교대, 성찬대, 성가대 등).

여섯째, 본 논문은 ‘건축헌금 작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축헌금 작정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겠지만, 은행 대출과 같은 재정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

³¹ Ibid., 53-67.

지 않는다.

용어의 정의

성전건축에 대한 ‘성경적 믿음’의 용어 정의

연구자는 ‘교회 건축에 대한 성경적 믿음’에 대해 아래의 세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첫째, 성전건축과 관련된 다윗의 믿음으로, ‘제사장 나라에 대한 충성’이다. 둘째, 성전건축에 대한 바울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에 대한 충성’이다. 셋째, 성전 건축에 대한 통성경적 믿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성전’과 ‘교회당(敎會堂)’의 용어 정의

연구자는 ‘성전’과 ‘교회당’이란 용어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본 논문에서 혼용해 사용한다. 그 이유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건물성전(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셨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건물성전의 기능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성도가 모이는 건물이 교회당(敎會堂)이다. 그러므로 ‘성전’과 ‘교회당’은 ‘건물’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논문의 구조

본 논문은 크게 4 부분으로 나눈다.

제 I 장에서는 이 논문의 주제와 목적, 선행연구,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와 한계, 성경적 믿음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본 논문의 구조에 대해 다룬다.

제 II 장에서는 교회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 그 동안 성전이 어떻게 변천해 왔

는지 성전 변천사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성전 변천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임재하느냐’ 이므로,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성전의 변천사를 살펴려고 한다.

제 III장에서는, 성전건축에 대한 성경적 믿음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성전 건축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다윗과 바울이다. 다윗이 ‘보이는 성전(유형교회)’을 건축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성전(무형교회)’을 확장한 사람이다.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필요하므로, 다윗과 바울의 성전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전 건축에 대한 또하나의 믿음은 통성경적 믿음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성전을 건축하다가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된다. 그 중에 어떤 문제는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이 ‘통성경적 믿음’이다. 성전건축이란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성경적 믿음으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제 IV장은 프로젝트 실행과정으로, 덕장교회를 성경적 믿음으로 어떻게 건축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제 II 장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성전 변천사

성경에 보면 성전은 여러 번 변천해 왔다. 성전 변천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臨在)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에 임재하셨느냐’에 따라 성전의 모양이나 장소가 바뀌게 되고, 성전의 역사도 바뀌었으므로, 본 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성전이 변천해 온 과정, 곧 성전의 변천사를 살펴 보고자 한다.

족장 시대 이전

족장시대 이전의 제사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노아의 제사, 두 가지 기록이 있다. 그러나, 제사를 지냈던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했던 장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 4:1-1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온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 일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양을 치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히11:4),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드렸기 때문이다(창4:7).

노아의 제사

노아는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 단(壇)을 쌓았다(창8:20). 홍수에서 살아 남은 노아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로 단을 쌓았다. 이것은 온 인류가 죄로 인해 홍수 심판을 받을 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인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또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된 새로운 인류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겠다는 헌신의 뜻이었다.¹

‘단(壇)’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즈베아흐(מִזְבֵּחַ)’는 ‘자바흐(זָבַח, 제사 드리다, 동물을 살육하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죽인 동물을 바치는 제단’이란 의미이다(출 29:18, 대하 29:22). 영어로는 ‘altar’로 ‘altus(높은)’에서 유래되었다.² 이것은 제단이 통상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이다.³

한편, ‘미즈베아흐’라는 단어가 창세기 8:20절에 최초로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은 노아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제사법이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이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원리는 이미 아담과(창 3:21), 아벨 때부터(창 4:4)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따라 아브라함(창 12:7, 13:18)과 야곱(창 33:20, 35:7) 등, 믿음의 후손들이 노아의 본을 받아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⁴

노아는 제단을 쌓은 후,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때 정결한(타호르/טהור)이란 형용사가 두 번 반복되는데,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흠

¹ 강병도편저, *카리스종합주석 제2권 창세기 7-15장* (서울: 기독지혜사, 2003), 147.

² Ibid.

³ ‘단’은 보통 구릉의 정상 등 높은 위치에 돌을 쌓아 만들었다. 이것은 제사가 이 지상에서 수행되는 것이지만 제사의 대상과 목적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나는 신성한 행위임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이다.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창세기 제1-11장* (서울: 제자원, 2006), 526.

⁴ 강병도편저, *카리스종합주석 제2권 창세기 7-15장*, 147.

이 없고, 정결해야 했다(레24:5-7). 봉헌자는 정결한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도 정결해지기를 소원하며 속죄한다(레14:31). 노아는 자신의 삶을 죄에서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렸다.⁵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번제(올라/הֲלִיב)’이다. 이후 번제는 율법에 정해진 제사 중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되었다.⁶

족장시대: 제단

이스라엘 족장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롤랑 드 보(Roland de Vaux)는 족장들이 제단을 쌓은 장소가 “하나님이 나타나 자신을 계시하신 곳”이었다고 한다.⁷ 설령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가 아니라 해도, 그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이요(창22:1-19),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다(창12:1-9).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임재했던 장소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재하신 그 장소에 제단을 쌓았고(창12:7), 또 지시하신 장소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 올지니라”고 하였다.(창15:9). 아브라함은 명령대로 지시한 장소에서 제단을 쌓았다(창15:1-11). 창

⁵ Ibid., 148.

⁶ Ibid. ‘드린다’(창8:20)란 단어가 ‘알라’로 기록된 것은 희생제물을 태우는 제사의 불꽃과 연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제사의 대상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창세기 제1-11장*, 526.

⁷ Roland de Vaux, 이양구, 김성규 편역, *舊約時代의 社會風習* (서울: 기독교문사, 1989), 189-190.

세기 2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고 한다(창22:2). 아브라함은 지시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창22:1-14).

이삭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난 장소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삭은 주로 브엘세바 성소(聖所)와 관계되어 있다. 이 브엘세바는 ‘맹세를 맺은 우물 또는 일곱 우물’ 이란 뜻이다(창21:31). 하나님은 거기서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인해 주셨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하였다(창26:23-25).⁸

야곱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난 장소에 단을 쌓았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밤이 되어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서 있고,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을 축복하였다. 야곱은 자다가 일어나 베게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창28:10-22). 그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고비마다 나타나셔서 “벤엘로 올라가라,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고 하셨다(창31:11-13, 35:1-7).

롤랑 드 보 (Roland de Vaux)는 이들이 드린 제사는 가나안 땅의 이방 제사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⁹

⁸ Ibid., 196.

⁹ Roland de Vaux, *Ancient Israel: It's and Institution*, 271, 정장복 역,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1), 51에서 재인용.

<표1> 이방 종교와 성경에서 나타난 예배의 차이

이방 원시 종교 예배		성경의 초기 예배
1	해, 달, 별 등을 비롯한 자연의 신들을 섬기는 다신적(多神的) 예배였다.	야웨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唯一神)사상의 예배였다
2	그들은 예배 대상인 신들로부터 아무 응답도 받지 못했다. 독백적인 섬김의 형태였다	성경에 나타난 제단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격적인 응답이 있었다.
3	섬기는 신들의 형체를 그리거나 만들어 예배하는 우상 종교였다.	하나님에 관한 일체의 형상을 남기지 않았다.
4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 성취에 예배의 주 목적을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관된 삶을 살았다.
5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응답하는 감사의 제사가 대부분이었다.

족장들은 하나님이 나타난 장소나 지시한 장소에 제단을 쌓았다. 족장들이 쌓았던 제단(祭壇, altar)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높직하게 만들어 놓은 자리로서 흙이나 돌로 쌓아 올렸다. 초기의 단은 자연적인 고지에 만들기도 했는데, 그 모양과 크기는 사용한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양했다.”¹⁰ “초기의 제단은 다듬은 돌로 만드는 것과 계단을 마련하는 것이 금지되었다(출20:25-26). 주로 자연석(혹은 흙)을 거둬 쌓고 그 위에 평평한 돌을 놓아 만들었다(삿6:19-23, 삼상14:31-35).”¹¹ 그러나, 후기에는 제단에 계단을 만드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제사장의 복장 규례가 엄격해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제사장의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되었다(겔44:17).¹²

¹⁰ 가스펠서브, *라이프 성경사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2), 190.

¹¹ Ibid., 918.

¹² Ibid.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제단은 노아가 대홍수 후 방주에서 나와 세운 것이었다(창8:20). 족장시대에는 아브라함(창12:7-8, 13:4,18, 22:9), 이삭(창26:25), 야곱(창35:1-7)이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족장들의 시대가 흐르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옛날 조상들의 성소 제사 의식을 이어받았다.”¹³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모세(출17:15), 여호수아(수8:30-31) 등이 계속해서 제단을 쌓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초기에는 개인 혹은 가문 중심으로 제단을 쌓는(삿6:24) 등, 많은 지방 성소가 구축되었다.¹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도착해 ‘산당’을 세웠다. 산당(山堂, high place)은 산 위에 세워진 신전으로 히브리어로 ‘바마’인데, ‘높은 곳’이란 뜻이다.¹⁵ 산당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삼상9:12, 왕상3:2-3, 대상16:39, 21:29).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전통에 따라 산당 제사를 계속하였고, 이것은 곧 우상숭배로 이어지기 일쑤였다. 그 후에 아사(대하14:2-5), 히스기야(왕하18:4)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신실한 왕들은 산당들을 파괴하였으나, 여로보암(왕상12:28-33), 르호보암(왕상14:23), 아합(왕상16:30-33), 므낫세(왕하21:3) 같이 악한 왕들은 반대로 산당을 재건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다. 이후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성군(聖君) 요시야가 산당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왕하22:8-20)을 단행했으나, 그의 죽음으로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다시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었다.¹⁶

¹³ Roland de Vaux, 이양구, 김성규 편역, *舊約時代의 社會風習*, 199.

¹⁴ 가스펠서브, *라이프 성경사전*, 918-919.

¹⁵ Ibid., 491.

¹⁶ Ibid., 492.

광야시대: 성막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 계약 체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다(출19:1). 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였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 이었다(출19:6). 이 제안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다(출19:5).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제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수락함으로써 성립되었다(출19:1-8).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¹⁷

‘제사장 나라’ 는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꿈” 이다.¹⁸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 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계 열방 사이에서 중재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즉,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를 선교하겠다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 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 이 된다고 했는데, 이때 “거룩은 사랑이다.”¹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계약을 맺은 후 십계명을 주셨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대헌장’ 으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되는데 ‘하나님 사랑(출20:1-11)과 이웃 사랑(출20:12-17)’ 이다. 여기에서 ‘거룩한 백성’ 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 을 의미한다(레19:1-18). 레위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레19:2)” 하면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우상숭배 하지 말고(레19:3-4), 이웃을

¹⁷ 조병호는 성경을 7트랙으로 분류했다. 1) 모세오경, 2) 왕정 500년, 3) 페르시아 7권, 4) 신구약 중간사 400년, 5) 복음서, 6) 사도행전 30년, 7) 공동서신 9권. 조병호,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서울: 통독원, 2013), 31-141.

¹⁸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3), 59.

¹⁹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3), 88.

사랑하라(레19:9-18)고 한다. 즉, 레위기 19장의 기록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의미한다. 레위기 19:18절의 “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는 이 말씀은 ‘기록’을 의미하며,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 역시 ‘기록’이다.”²⁰

결국 ‘제사장 나라 기록한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록한 백성이 되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시내산에서 머물던 1년 동안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의 기초가 놓이게 된다. 따라서, “ ‘제사장 나라 기록한 백성’은 세계 선교의 초석이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꿈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²¹

성막건축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 기록한 백성’이라는 계약을 맺은 후, 하나님은 자신의 지상 임재 처소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²² 이 성막의 구체적인 설계도는 하나님이 직접 주셨고(출25-27장), 이스라엘의 헌신으로 완성이 되었다(출35:4-36:7).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첫째,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만들어야 했고, 둘째는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자원해서 바친 예물로 만들어야 했다(출35:5, 21, 22, 26, 29, 36:1-7).

“성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쉬칸’ (מִשְׁכָּן/거주지, 성막)의 문자적 의미는 ‘거주지’ (dwelling place)로, ‘거주하다’ 라는 뜻의 동사 샴칸(שָׁכַן/거주하다)에서

²⁰ Ibid.

²¹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59.

²² 하나님은 사람이 지상에 성소(聖所)를 지으면 ‘나는 그들 안에 함께 살 것’이라고 한다(출25:8, 29:45). 이것은 임마누엘과 맥을 같이 하며, 이것이 ‘셰키나’(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심) 사상의 근거이다. 민영진, *출애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509.

비롯되었다.”²³ 성막은 12지파로 구성되는 진의 중앙에 위치한 하나님의 거주지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지성소에 안치된 법궤의 속죄판 위에 임하였다. 이 지성소는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단 한번 들어갈 수 있었다.

성막이 완성 되고 성막 봉헌식을 진행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출40:34-35)” 하게 임재하였다.²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고,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동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그 자리에 머물렀다(출40:34-38).²⁵

테렌스 E. 프레다임(Terence E. Fretheim)은 성막이 완성된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 성막 안으로 들어 가셨는데, 성소는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내재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한다.²⁶

하나님이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하시게 되면서, 이때부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500년 동안 이동 성소인 성막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때는 아직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용 성막을 만들었고, 이동할 때는 고삐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했으며, “성막 구조물을 한 번 옮기는데 약 8,500명이 필요했다.”²⁷

²³ 서명수, “성막과 법궤의 기능,” 18 *구약논단* (2005), 74.

²⁴ 성막건축은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채우는 데에서 그 절정에 이르며(출24:17-18), 시내산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소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한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는 새로운 ‘세키나’가 된다. 민영진, *출애굽기*, 752.

²⁵ 성막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상징이다. 즉 성막은 휴대할 수 있고, 해체할 수 있으며 다른 장소에 세울 수도 있기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에 대한 이동성(cf. 겔1-3장)의 강력한 상징이다. 박호용, *야웨인지공식* (서울: 성지출판사, 1999), 156.

²⁶ Terence E. Fretheim, *Exdous*, 번역위원회 역, *출애굽기* (서울: 장로교출판사, 2001), 481-482.

²⁷ David McSwain, *The Final Curtain*, 최석철 역, *마지막 커튼* (서울: 글마당, 2007), 29.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머물던 1년 동안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세워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막’ 과 ‘제사’ 이다.²⁸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과 제사의 설계’ 의 핵심(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²⁹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설계법을 주시면서(출24-27장),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출25:22) 말씀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려는 계획이었다.”³⁰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데, 휘장으로 구분하였다. 성막 중에 제일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였고,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을 보관하는 법궤가 있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임재할 장소로 법궤를 만들도록 했고(출25:10-22), 이 법궤를 중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치도록 하였다. “이 법궤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 이었다.”³¹

성막 안에는 많은 성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였다. 강문호는 법궤의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법궤를 덮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법궤를 덮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했고, 구름 기둥이 멈추는 장소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민9:15-23). 법궤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다.

둘째, 법궤는 만남의 장소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도 반드시 ‘법궤 거기서’ 만나주셨다(출25:21-22). 하나님을 만나려면 법궤까지 가야 했다.

셋째, 법궤는 계시의 장소이다. 하나님은 거기서 모든 계시를 하셨다(출25:22). 그래서 모세는 모든 계시를 법궤에서 받았다. 물을 것이 있을 때는 그

²⁸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62.

²⁹ Ibid.

³⁰ 조병호, *성경통독*, 71.

³¹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355-357.

곳을 찾았다. 왜냐하면 그곳은 계시의 자리이기 때문이다.³²

또, 법궤는 죄사함의 장소였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절기가 ‘대속죄일’이었다. 대제사장의 존재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사함받고 나오는 것이었다.³³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히9:7, 10:10-14).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을 찢어 버렸다. 이제는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죄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히 4:14-16).³⁴

성경에 보면 이 성막을 여러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즉, 성소(출25:8), 장막(출25:9), 성막(출26:30), 회막(출29:42), 증거의 성막(민1:53), 하나님의 집(삿 18:31), 여호와의 집(삼상1:7), 세상에 속한 성소(히9:1), 하나님의 처소(행7:46)이다.³⁵

더 깊은 만남을 위해 5가지 제사 제도를 만들

성막 건축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을 위한 외적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었다. 하나님은 더 깊은 만남을 위해 5가지 제사 제

³² 강문호, *성막* (서울: 한국가능성계발원, 1996), 170-171.

³³ 강문호, *대속죄일* (서울: 한국가능성계발원, 1994), 12. 대속죄일은 피 뿌리는 날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히9:22). 그래서 성경은 피 묻은 가죽 옷으로 시작해 세마포 옷으로 끝나게 된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³⁴ 강문호, *성막*, 171.

³⁵ Ibid., 44-49.

도를 만드셨다(레1-7장).³⁶ 5가지 제사의 핵심은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다. 제사는 인간을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이다.³⁷

조병호는 5가지 제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번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리는 것이었다.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만남은 그 희생만큼 깊고 진지해지는 것이다.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기를 원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다.

둘째,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로 재산을 바친다는 의미이다.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로 얻은 곡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다. 번제와 소제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과 재산 모든 면에 걸쳐 이스라엘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다.

셋째,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이다. 화목제는 내장은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했다. 이웃과 좋은 관계, 이것은 하나님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넷째,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사이다. 이는 레위기를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 즉 복음이다.

다섯째, 속건제는 부지중에 하나님의 명을 어기거나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등, 의도하지 않고, 실수한 부분까지도 보상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제사이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은혜로 주어지지만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했다.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의 실수로 인해 해가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다.³⁸

왕정시대: 건물성전(예루살렘성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당신이 거할 임시 처소로 이동용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³⁶ 조병호, *성경통독*, 66-67.

³⁷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66.

³⁸ 조병호, *성경통독*, 66-67.

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움직이지 않는 건물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대하6:4-6). “회막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소산이었다면, 성전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재확인”이었다.³⁹ 건물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는 상징이다.

예루살렘 성전도 성막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합작품이었다.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시고(대상28:19),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대상29:4-9),⁴⁰ 솔로몬이 시공하였다. 예루살렘 성전 역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대하29:3,6).

하나님이 주신 성전 설계도에 보면, 성전은 “장막과 비슷한 형태의 건물로 짓되, 성막 보다 두 배의 크기로 짓도록 하였다. 성소와 지성소는 전체의 면적에서 각각 $\frac{2}{3}$ 와 $\frac{1}{3}$ 의 규격으로 짓도록 하였다.”⁴¹ 또 성전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별되는데 지성소, 성소, 이방인의 뜰로 나뉘어져 있다. 즉, 성전은 대제사장만 들어 갈 수 있는 지성소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로 처음부터 설계되었다.⁴²

7년의 긴 공사 끝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왕상6:37-38) 되고, 솔로몬이 법궤를 성전 안의 지성소에 안치함으로써(왕상8:1-11),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

³⁹ Ibid., 208.

⁴⁰ 다윗은 순금 100톤과 순은 240톤을 준비했고, 족장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금 170톤, 8.4g의 금화 1만개, 은 340톤, 동 610톤, 철 3,400톤 등 많은 보석을 바쳤다. 생명의말씀사 편집부, *현대인의 성경*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609.

⁴¹ Leon. Wood, *Israel's United Monarchy*, 윤종훈 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410.

⁴²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 나라*, 359.

제의 상징이 되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기 위해 기도를 마치자(대하6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대하7:1-2).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회막과 성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임하는데, 이것은 두 성소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동시에 동일한 응답 방식은, 기브온에 있는 회막 제의(대하1:3ff)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제단으로 이전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 솔로몬의 기도를 인정한 것이다.⁴³

500년 동안 지속되던 이동용 성막 시대가 끝나고, 1,000년의 움직이지 않는 성전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만 아니라 종교적인 성지(聖地)로서 온 백성의 중심이 되었다. 이 성전 중심 사상은 이후 바벨론 포로시대에도 지속되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으로 남게 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운반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다윗과 솔로몬은 도구로 사용되었다(대하6:4-6).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목적은 솔로몬의 기도에서 잘 나타나 있다(왕상8:22-

53, 대하6:12-42). 열왕기상 8장 41-43절을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왕상8:41-43)

“이 기도의 핵심은 성전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 오기를 원한다는 것

⁴³ 배희숙, *역대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27.

이다. 다시 말해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였다.”⁴⁴ 이 성전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마21:13, 막11:17). “이 성전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종교적인 건물이 아니었다.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가는데 이 성전이 쓰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책임과 사명으로 인식하겠다는 것이었다.”⁴⁵ 이처럼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지성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인 성소, 그리고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각각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법궤(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이곳 저곳 찾아 다니지 않고도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안정된 예배 장소가 마련되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됨으로써 가장 잘된 일은 “ ‘이방인의 뜰’ 이 조성됨에 따라 모든 민족을 복 주시기 위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계기가 열렸다는 것이다.”⁴⁶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이었다(대하3:1).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장소였다. 아브라함은 이 장소를 “여

⁴⁴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10.

⁴⁵ Ibid.

⁴⁶ Ibid., 144.

호와 이레” 라고 불렀는데,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창22:14)는 뜻이다(창 22:14). “여호와 이레라는 말 속에는 장차 건축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러질 각종 제사가 예시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갈보리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함축하고 있다.”⁴⁷ 또 이 장소는 다윗이 사탄의 충동으로 인구를 조사하다가(대상21:1),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을 때(대상21:14),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 을 사서(대상21:25),⁴⁸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심판을 멈춘 장소였고(대상21:15,26-27), 천사가 칼을 칼 집에 꽂았던 장소이다(대상21:26-27).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장소였다.

포로시대: 미래의 새 성전 예언

바벨론 포로시대는 스룹바벨 성전이 건물 성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솔로몬 성전의 연장 선상에 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중요한 것은 미래의 ‘새 성전’ 예언이라 할수 있다.

남유다의 멸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후 즐기치게 단 한 가지를 요구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출19:5-6)” 이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

⁴⁷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창세기 제12-25a장* (서울: 제자원, 2006), 487-488.

⁴⁸ 성경에 보면 ‘아라우나’ 와 ‘오르난’이 혼용되어 나온다(삼하24:16, 대상21:15, 대하3:1). 이것은 원래 이름이 ‘아라우나’였으나, 역대기는 여부스어의 이름을 히브리 이름으로 바꾸어 기록했기 때문이다.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사무엘하 제19-24장* (서울: 제자원, 2006), 536-537.

랑하며,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늙었을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싫다며 왕이 다스리는 왕정제도를 요구했다. 하나님은 왕정제도의 폐단이 너무 크다며 반대했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왕정제도를 요구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으로 왕정제도를 허락하셨다(삼상8장). 왕정제도 속에서도 왕을 임명하는 임명권자는 하나님이었고, 왕은 임명권자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의 사명을 잘 이어가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멸망할 때까지 5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스라엘 왕정제도 500년 동안 42명의 왕이 있었으나⁴⁹ 5명의 왕을⁵⁰ 제외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의 길로 갔다. 그나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의 길을 제대로 간 사람은 다윗 한 사람 뿐이었다.⁵¹

북이스라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20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여로보암의 길로 내리 직진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로보암 시대(왕상12:25-33)와 오므리의 아들 아합 시대(왕상16:25-33)가 대표적으로 악했다. 하나님은 아합왕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 유턴을 시도했으나 돌아오지 않았고, 호세아를 통해 마지막 호소를 했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분열 왕국이 된지 200년 만에 앗수르에 의해 멸망 당하고, 사마리아가 사마리아인(혼혈족)이 되었다.

⁴⁹ 통일왕국시대 왕 3명(120년), 북이스라엘 왕 19명(200년), 남유다 왕 20명(350년).

⁵⁰ 통일왕국 시대는 다윗이 있고, 다윗만은 못했지만 분열 왕국시대의 남유다 왕으로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가 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왕이 한 명도 없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후에 떠난 왕으로는 사울, 솔로몬, 요아스, 아마샤, 웃시야가 있다.

⁵¹ 성경은 왕들이 ‘다윗의 길’(대하34:2)보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고 한다(왕상22:52-53). 왕상 12:25-33절에 보면 북왕국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벧엘과 단에 세웠고,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유사 절기를 제정하였다.

남유다는 분열 왕국이 된 후 350년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다. 그 20명의 왕들 중에 4명을 제외하면 모두 하나님을 떠났다. 특히, 남유다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그 죄악이 절정에 도달해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게 된다(왕하21장). 그 후 요시아 같은 훌륭한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악이 워낙 커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고(왕하25:1-21, 렘52:1), “제1차 포로로 다니엘과 3명의 천재 소년을 끌어 갔으며, 제2차 포로로는 에스겔을 포함해 1만 명의 우수한 인재를 끌어갔다.”⁵²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이 무서워 애굽으로 도망하였다(렘42:19).

바벨론 포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기간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을 정하였다(렘 25:11, 29:10-14). 이 기간은 유다 백성의 잘못에 대한 징계였지만, 그것이 진멸은 아니었다. 조병호는 이 70년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래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날수들인 70년”이었으며,⁵³ “그 70년 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징계이자 동시에 제사장 나라 재교육 기간”이었다고 한다.⁵⁴ 그래서,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 포로로 다녀오라” 외쳤고,⁵⁵ “이 70년의 기간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희망의 근거”가 되었다.⁵⁶ “바벨론에서 보내게

⁵² 조병호, *성경과 고대정치* (서울: 통독원, 2012), 194.

⁵³ 조병호, *성경줄기* (서울: 통독원, 2015), 87.

⁵⁴ Ibid., 88.

⁵⁵ Ibid.

⁵⁶ 조병호, *성경통독*, 308.

될 70년의 세월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잠깐의 징계” 라는 것이다.⁵⁷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멸망함으로써 고국에 돌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했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절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너희가 바로 ‘절망 앞의 희망’ 이라고 선포하였고, 에스겔은 그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왔는지를 설명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에스겔은 너희가 잠깐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가 오히려 희망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예언대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뒤,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고, 그들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고(스3-6장/스룹바벨), 성벽을 재건하고(느3-6장/느헤미야), 율법교육을 하고(스7:10/에스라), 다시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게 된다.

바벨론 포로와 회당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다.⁵⁸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제사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같이 제물이 없는 예배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고,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 된다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⁵⁹ 그리하여 회당이 생기게 되었고, 이 회당이 성전을 대용하는 장소가 되었다.⁶⁰

⁵⁷ Ibid.

⁵⁸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심(왕하23:26-27, 왕하25:8-18, 렘52:12-33).

⁵⁹ 회당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가 아니라, 율법을 읽고 해석하는 강론이었다. James M, Freeman, *Manners and Customs of the Bible*, 남송현 역, *성경 속의 생활풍속 따라잡기 신약편* (서울: 아가페, 1998), 20.

⁶⁰ 김소영, *현대 예배학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22.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희생제사도 다시 거행하게 되었으나, 회당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고, 성전예배와 병행해서 회당 예배도 존속하게 되었다(느8:1-6).⁶¹

성전재건의 환상과 귀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절망 중에 있는 남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뒤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편지를 보내 희망을 주셨다(렘29:1-14).

또 에스겔을 통해 위로하였는데, 먼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떠났는지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성전을 서서히 떠나는 환상이었다.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기 싫어했으나,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범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떠나셨다.⁶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나라가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해 희망을 주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희망을 주었고, 너희가 무덤 문(바벨론)을 열고 나오게 될 것이라며 회복을 약속하셨다(겔37:1-14). 또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귀환 시키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셨다(겔40-42장).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였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 주고, 성전에 다시 들어오시는 환상을 보여 주셨다(겔43:1-5).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때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어쩔

⁶¹ 회당에서 거행된 안식일 예배순서는 쉼안식, 기도, 율법낭독(행15:21), 강해와 권면(행13:15-16, 눅1:22), 축도, 축도 후에는 아멘으로 끝났다. 김소영, *현대 예배학 개론*, 18-21.

⁶²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남: 그룸(겔9:3) → 성전 문지방(겔9:3;10:4) → 성전 동문(겔10:19) → 성읍(겔11:23) → 성읍 동쪽 산에 머뭇(감람산/겔11:23).

수 없이 서서히 동쪽(감람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러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실 때는 단숨에 들어오셨다(겔43:1-5).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성전에 함께하고 싶어 하셨다.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겔43:5). 하나님께서 성전에 다시 들어오심으로 인해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되는 환상이었다.

스룹바벨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됨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성전 재건을 하게 되었다(스1장). 그러나 경제적으로 열악했고, 앗수르에 의해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된 이방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므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스4장). 하나님은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을 재촉했다(학1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스6:7,11),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셨다(스6:1-12, 학2:6-8).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스룹바벨 성전)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되었다.⁶³

새로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은 그 모양이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했다(학2:3). 외형도 초라했지만, 무엇보다 법제가 없었다. 법제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허무했고, 상상도 하기 싫었다.⁶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2:9) 고 하셨다. 여기에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하는데, 그 둘의 화려함을

⁶³ 성전이 3차례 지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헤롯 성전이 불탄 날은 솔로몬 성전(제1성전)이 무너지던 날과 같은 날, 곧 아뮬월 제 9일인데 유대인은 이날을 금식하는 날로 여겼다. 가스펠서브, *라이프성경사전*, 1056.

⁶⁴ 연로한 자들은 법제에 대한 향수를 금할 길 없었다. 그러나 법제는 다시 기억하지 말아야 할(렘 3:16)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 법제가 없음은 오히려 그 실체(實體)가 되는 그리스도를 맞기에 더 적합한 것이었다(히 9:4-9). 김희보, *舊約 학개, 말라기 註解* (서울: 總神大學出版部, 1989), 43-44.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비교하고 있다. 솔로몬 성전은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지만(왕상8:11 / 출40:34절에 보면 성막도 동일), 스룹바벨 성전은 봉헌식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기록이 없다(스6:13-18).⁶⁵ 그렇다면, 둘째 성전(스룹바벨)이 첫 성전(솔로몬 성전)보다 영광이 크게 될 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다.

김희보는 학개 2:9절이⁶⁶ 말라기 3장 1절과⁶⁷ 잘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한다.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인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임하게 될 때(말3:1), 비로소 아버지의 영광이 그 독생자를 통하여 충만하게 될 것이었다(요1:14). 그러므로 학개 2:9절의 말씀은 곧 성전의 주인이요(마12:6), 실체가 되시는 주님께서(요2:19) 그 성전에 임재하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전은 평강의 근원이 될 것이고, 모든 축복이 그 곳에서부터 흘러 나와 온 세계에 뻗치게 될 것이라고 한다(겔47:1).⁶⁸

미래의 새 성전에 대한 예언

하나님은 다윗 이후 500여 년이 지나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였다(렘31:31-33).⁶⁹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

⁶⁵ Ibid., 54.

⁶⁶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학2:9).

⁶⁷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말3:1).

⁶⁸ 김희보, *舊約 학개, 말라기 註解*, 55.

⁶⁹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렘31:31-33).

다 백성에게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의 꿈을 심어주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은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불타버린 상태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꿈과 함께, 건물 성전이 아닌 ‘마음 성전’의 밑그림을 그려주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었다.”⁷⁰

하나님은 과거에는 자신의 법(십계명)을 돌에 새겨 궤(櫃)에 담아 지성소에 보관하고 그 곳에 임재 했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새기고, 그곳을 지성소 삼아 임재함으로써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다(렘31:33). 예레미야는 이 마음에 대해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그들 마음 속에 직접 기록한 마음(렘31:33)이라고 한다. 이것은 마음 성전에 대한 예언이다.

에스겔 40장에서 4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재건할 성전 조감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과 실제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은 달랐다(스6:3-4).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은 이중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스룹바벨 성전)될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미래 새 성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 무엇보다도 ‘새 성전’에 대한 예언으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성전이며(요2:19-22, 계21:22),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구원의 생수가 흘러 갈 것이라는 것이다(겔47:1-12).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질 ‘마음 성전’인 신약의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스가랴가 본 환상도 비슷했다(슥2:1-5).

⁷⁰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361.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새 영’ (새 정신), ‘새 마음’ 을 주는데, 그 마음은 굳은 마음을 제거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한다. 과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런 마음이 아니다(겔36:24-28).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마음을 ‘새 영’, ‘새 마음’ 이라고 한다. 여기서 “ ‘새(שׁוּב, 하다쉬)’ 는 ‘다시 세우다’, ‘새로운 것이 되다’ 는 의미를 가진 ‘하다쉬’ 에서 유래한 말로, ‘전혀 다른 것, 완전히 새롭게 된 것’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새 영과 새 마음은 죄로 덮여진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한다(요3:5).”⁷¹ “ 이 ‘새 영, 새 마음’ 의 약속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의 임재로 성취되었다(행2:1-4, 10:44-48).”⁷²

C.F. Keil 과 Delitzsch는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것은 칭의와 일치하는 것이나, 성화와 혼동되어서는 안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일어난다. 그것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그 육신 안에 새 마음을 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생명의 새로움에서 행하게 하신다” 고 한다(겔36:26-28, 11:18-20).⁷³

하나님은 이 ‘새 마음’ 성전에 대해,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고 한다(겔43:7).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이다. 예루살렘 성전도, 스톱바벨 성전도, 46년 동안 대공사를 해도 완공하지 못했을 만큼 웅장했던 헤롯 성전도(요2:20)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는 적합하지 못했다.⁷⁴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는 오직

⁷¹ 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석 제12권, 에스겔·다니엘* (서울: 제자원, 2009), 465.

⁷² Ibid.

⁷³ C.F. Keil,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by C.F. Keil and F. Delitzsch* Vol. 33. *Ezekiel*, 송종섭 역, *카일·델리취 舊約註釋 33권 에스겔 (중)*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4), 268.

⁷⁴ 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석 제12권, 에스겔·다니엘*, 546.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세운 ‘마음 성전’ 이요, ‘교회 공동체’ 이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봉헌할 때도(출40:34),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왕상8:11). 그런데, 스투바벨 성전을 봉헌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기록이 없다(스6:13-18). 그러나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겔43:5).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은 스투바벨 성전을 지칭한다기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를 통해 만든 ‘새 마음’ 성전이라고 볼 수 있다. ‘새 마음’ 성전은 과거 성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전이였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본 이 새 성전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떠나가지 아니하며, 이 성전 자체도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성전이기 때문이다(겔43:7). 에스겔은 이 성전의 이름을 “ ‘여호와 삼마’ 라고 불렀다(겔48:35).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 는 뜻이다.⁷⁵

예수님 시대: 예수님 자신이 성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 성전을 정화(淨化)하셨다. 유월절의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에 사용할 온갖 짐승을 팔고, 세계 각국의 화폐를 유대 돈으로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로 인해 시장바닥처럼 소란스러웠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다 내쫓고, 돈 바꾸는 환전상의 상(床)을 둘러엎으셨다(요2:13-16, 마21:12-13, 막11:15-17, 눅19:45-46).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⁷⁵ Ralph W. Klein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고 한다. 오히려 그 성읍 자체는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이며, 아마도 성전 그 자체의 장소라고 한다. Ralph W. Klein, *Ezekiel*, 박호용 역, 에스겔 (서울: 성지출판사, 1999), 290.

회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분노하셨다(막11:17).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토록 분노했던 이유는 성전을 건축한 하나님의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설계도에 보면 성전은 크게 3가지로 나뉘었는데, 지성소, 성소, 이방인의 뜰이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고,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 용서받고 나왔다.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는 곳으로, 유대인들이 거기서 제사 드리며, 기도하며, 죄사함을 받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방인의 뜰은 세계 모든 나라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장소였다(왕상8:41-42). 솔로몬 성전은 처음 설계부터 세상의 누구나 와서 죄사함을 받는 장소요, 세상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였다(대하6:12-42, 사56:7). 그런데, 대제사장과 종교 귀족이었던 사두개인이 작당하여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팔고, 환전상을 운영하므로, 이방인이 기도하는 장소를 없애 버렸다. 이방인은 더 이상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짐승을 내 쫓고,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엎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작당해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매점을 운영했던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 ‘디아스포라’는 ‘분산’, ‘유배’라는 뜻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방인 사이에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을 일컫는 말이다. 그들은 페르시아 시대 때 많이 귀환했지만, 헬라와 로마 시대까지 귀환하지 않고 계속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상당수 있었다. 로마 시대까지도 유대로 귀환하지 않은 즉, 흩어진 유대

인들은 각자 살던 나라에서 회당을 짓고 주로 장사에 종사하며 살았다.⁷⁶ 이들이 명절(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멀리 외국에서 짐승을 끌고와 제사를 드릴 수 없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대체사장과 사두개인이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편의를 봐준 것은 막대한 수입을 챙기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시대 때 예루살렘은, 평소 “상주 인구가 약 25,000 명에서 30,000 명”이었지만,⁷⁷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명절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다. 요세푸스는 유월절에 최소 270만 명 이상 모였는데, 그것도 이방인과 여자는 숫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았다고 한다.⁷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외국에 흩어져 살다가 명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상당수 있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멀리 외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사람들이라,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양이나 소를 끌고 올 수 없었다. 율법에 의하면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은 법제가 있는 곳에 와서 제물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신14:24-26).⁷⁹

William Barclay 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외부 상점에서 제물을 사올 경우 검사관에게 수수료를 주고 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검사관은 제물에서 흠을 찾아내 성전 매점에서 구입하도록 했다고 한다.⁸⁰

⁷⁶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2), 311.

⁷⁷ Joachim Jeremias, *Jerusalem zur Zeit Jesu*, 한국신학연구소 역,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120.

⁷⁸ Josephus, *The Jewish War, Books IV-VII*, 성서자료연구원 역, *하버드판 요세푸스 2권 유대전쟁사 II* (서울: 달산, 1992), 308-309.

⁷⁹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75-276.

⁸⁰ William Barclay, *The Mind of Jesus*, 정용섭 역, *예수의 思想과 生涯*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268.

또 환전상을 운영했던 것은, 성전세는 유대 돈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유대 돈은 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 돈은 왕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어서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했다. 사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살던 나라의 돈(로마, 헬라, 페니키아, 페르샤, 티리아 등)을 가지고 왔다.⁸¹ “성전에 바치는 세금은 이틀분의 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었지만,⁸² 환전 수수료는 ‘1마(Maah)’ 즉, “반나절분의 임금”을 받았고,⁸³ 산 비둘기 한 쌍은 시장 가격보다 ‘20배’나 비싸게 팔았다.⁸⁴ 폭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제물을 파는 매점과 환전상이 성전 바깥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마당인 이방인의 뜰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토록 화를 내시며 장사꾼들을 내쫓고 환전상의 상(床)을 둘러엎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회복시켰다(사56:7, 왕상8:22-25, 대하6:12-42).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淨化)했더니 성전 당국자(當局者)들이 찾아와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요2:18)”며 예수님에게 항의하였다. 이때 예수님은 그 표적으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

⁸¹ Ibid., 267.

⁸² Ibid., 266.

⁸³ Ibid., 267-268.

⁸⁴ Ibid., 269.

으키리라” 했는데(요2:19),⁸⁵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이라고 한다(요2:21).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며, 이 성전을 혈면(십자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부활)이라고 한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종료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성전이 된다는 것이다. “새 성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⁸⁶ 즉,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의 육체의 파괴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새로운 성전의 건축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의 용서와 갱신이 경험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근거하며 영원히 유지되는 ‘처소’이다.”⁸⁷ 그래서 비슬리 머리(G.R. Beasley-Murray)는 새 시대의 성전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한다. 요한복음 2:19의 루에인(λύειν, 혈다)과 에게이레인(εγείρειν, 일으키다)의 목적어가 동일하므로, ‘육체’ (σωμα, 소마)는 바울의 의미에서 공동체를 가리킬 수 없다. 새 성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동일한 개념이 에스겔 47:1-12로 소급되는 언급과 더불어 요한복음 7:37-38절에 예증된다고 한다(참조, 계21:22, 22:1-3).⁸⁸

지금까지,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속주이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종의 그림자

⁸⁵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요2:19)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하거나 자기를 죽이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장차 무슨 짓을 하게 될 것인지 미리 예고하신 것이다. Matthew Poole, 박문재 역, *요한복음* (과주: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15), 56.

⁸⁶ George R. Beasley-Murray, *Word Biblical Commentary Vol.36. John 1-21*, 이택신 역, *요한복음* (서울: 솔로몬, 2001), 180.

⁸⁷ Ibid.

⁸⁸ Ibid.

역할(요2:21)”을 했다.⁸⁹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1,500년 내려오던 성전(성막 500년,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시대가 종료되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성전, 유일한 길,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 휘장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요19:30)”고 선포하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졌다(마27:51).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수명이 다하고 그 기능이 끝났음을 의미하며, 또 새로운 성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병호는 “다 이루었다”고 외치는 ‘그 순간’의 의미에 대해 “1) 십자가에서 -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심, 2) 하나님 나라의 실현 -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3) 대제사장이 더 이상 1년에 1번씩 휘장 안 지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짐”의 뜻이라고 한다.⁹⁰

성막이나 성전 설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다. 하나님은 성막 설계도를 주신 후, 이 휘장이 500년 동안 유지되기를 바랬고, 솔로몬 성전 때도 성막형 설계도를 주면서 이 휘장이 1,000년 동안 유지되기를 바랬다.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 설계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 휘장이 유지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히10:19-20).⁹¹ 박수암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휘장이 찢어진 것에 비유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못박히시고 옆구리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 곧

⁸⁹ 가스펠서브, *라이프성경사전*, 537.

⁹⁰ 조병호,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5), 26-27.

⁹¹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10:19-20).

그의 육체가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처럼 갈라진 것이었다고 한다.⁹²

하나님은 이 휘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십자가로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제사장을 통한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기다리셨던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하신 것이다.”⁹³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관계를 완전하게 연결하였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요, 대속 제물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David McSwain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 휘장의 두께는 8cm로 황소를 두 패로 갈라서 찢는다 해도 불가능한 두께라고 한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기적이라는 것이다. 사람의 어떤 손길도 휘장을 찢어 놓을 만큼 강하지 못하며, 역사가들도 이 휘장은 수선할 수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은 이 휘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짜 맞춰보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다. 어떤 실도, 어떤 끈도, 찢어진 부분을 지탱해 주지 못했다. 휘장은 한번 만에 영원히 찢어졌다고 한다.⁹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요4:1-26),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요4:21). 이 산(그리십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한다(요4:2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 때라고 한다(요4:23). 예수님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⁹² 박수암, *히브리서*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296.

⁹³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306-307.

⁹⁴ David McSwain, *The Final Curtain*, 최석철 역, *마지막 커튼*, 163.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왔는데, 곧 이때라고 하신다. “요한복음에서 ‘때(hour)’ 라는 말은 일관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높임을 받는 때를 의미한다.”⁹⁵ 예수님은 더 이상 건물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4:23),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신다(요 4:24). Bruce Milne 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예수님 그분은 진리이시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사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거듭남으로써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참된 예배는 성자를 통해 그리고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한 가운데 성령에 의해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⁹⁶ 영과 진리로 예배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건물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다. 바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둘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 성전(교회)을 창조’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2:19)고 말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며(요2:21, 계21:22), 이 성전된 자기 육체가 무너지면 새로운 성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한다(요2:19-22).

이것은 구약의 예언대로(삼하7:12, 렘31:31-33, 겔36:26-27),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의 용도를 폐기하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성전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십자가 사건은 건물 성전(예루살렘 성전)의 사용 용도를 폐기하는 것이고, 부활은 새 성전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세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⁹⁵ Bruce Milne, *The Message of John*, 정옥배 역, *요한복음 강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0), 112.

⁹⁶ Ibid., 113.

예수는 그의 다가오는 죽음을 하나님의 종말의 백성을 모아(또는 창조)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속죄와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로 보았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는 자신의 죽음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죄(세상 죄)를 속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성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종말론적으로 성취하는 사건으로 생각하였다 …… 예수는 자신의 죽음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의 성취일 뿐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예수는 이것을 ‘새 성전’ 이라는 관점으로 이해), 혹은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실제화 될 것이므로 자신의 죽음은 곧 ‘새 성전’ 을 건축하는 일로 여겼다.⁹⁷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창조하는데, 이 공동체가 바로 그가 짓는 새 성전이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안에 성령을 통해서 거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의 백성이 새 성전이 되는 것이다.⁹⁸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성전이며,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창조하였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가 되었고, 그들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었다(고전3:16).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만든 새 성전이고 교회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 성전을 창조하고, 교회를 창조하셨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렘31:33).

사도시대: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고(요19:30) 선포하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막15:38, 눅23:45). 이것은 1,500년

⁹⁷ 김세윤, *예수와 바울* (서울: 참 말, 1993), 156-158.

⁹⁸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서울: 두란노, 2002), 74-75.

동안 내려오던 성전시대(성막 500년, 예루살렘 성전 1,000년)와 제사장 나라의 종말을 알리는 것이고, 새로운 교회시대를 알리는 시작이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1,500년 동안 내려오던 ‘성전’ (Temple)이 ‘교회’ (Church)란 패러다임으로 변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고 명령하면서(행1:4),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1:8)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행1:4) 한 곳에 모여 기도해 힘썼다(행 1:12-14).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며(행1:3), 제자들은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⁹⁹ 120명의 무리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해 전념한 지 10일이 지났다. 그 때 약속한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다(행2:1-13).

오순절은 유월절 혹은 무교절 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었다(레23:16). 오순절을 칠칠절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출34:22), 그 이유는 오순절이 무교절로부터 7주 후에 지켰기 때문이다(신16:9). 또 오순절은 추수의 첫 열매를 기념하는 절기로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출34:22).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첫 열매로서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졌다.¹⁰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에서뿐만 아니라, 전 기독교 선교 역사 가

⁹⁹ 이 달, *사도행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54.

¹⁰⁰ Matthew Poole, 정충하 역, *사도행전, 로마서* (파주: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15), 17. 매튜 풀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나단이나 사무엘에게 임한 예언의 은사처럼 이따금씩(occasionally) 주어진 그런 은사가 아니었다고 한다. Ibid., 17-18.

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로 불릴만 하다. 그것은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복음 전파도, 불신자의 회개도, 교회의 확산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성령 강림은 초기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120명의 제자들은 언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임할지 알 수 없었고, 다만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 때 홀연히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였다. 놀라운 현상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고, 둘째는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었다. ‘바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노에’로서 보통 ‘영이나 바람’을 뜻하는 ‘프뉴마’와는 구별되는 단어이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바람이 하나님이나 성령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¹⁰¹ 여기에서 언급된 불도 바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출19:18참고). 각 사람 위에 임재하였다고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임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¹⁰²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로 방언을 받고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행2:4). 이때는 오순절이라 여러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행2:41).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였고,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날마다 수가 더해갔다(행2:47, 4:4, 6:7).

하나님이 건물 성전에 임재하던 ‘건물성전’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예수

¹⁰¹ 이 달, *사도행전*, 54-55.

¹⁰² *Ibid.*, 55.

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 공동체 안에 거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탄생하였다.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 유럽 및 기타 대륙의 예배당 건물들은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복음이 선포된 후 3백 여 년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없었다. 이 당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말이었다.¹⁰³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말한다. 초대교회는 건물 교회가 없었고,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 불렀다. 성경에는 교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고 있다.

첫째, 교회는 어느 집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곧 교회였다(어느 집을 의미).¹⁰⁴ “바울은 ‘네 집에 있는 교회’라 언급하였고(몬2), ‘저의 집에 있는 교회’ (롬16:5),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불렀다(골4:15).”¹⁰⁵

둘째, 하나의 도시를 지칭해 교회라 부르기도 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행 8:1, 11:22), 겐그레아(롬16:1), 고린도(고전1:2, 고후1:1), 데살로니가(살전1:1, 살후1:1), 에베소(계2:1)와 같은 경우이다.¹⁰⁶

셋째, 하나의 지방을 지칭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갈1:2), 유대(갈 1:22, 살전2:14), 마게도냐(고후8:1), 아시아(고전16:19, 계1:4,11)와 같은 지방에 있는 성도를 지칭하기도 했다.¹⁰⁷

넷째, 성도들의 비밀 장소를 의미하기도 했다.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을

¹⁰³ 조병호, *성경통독*, 580.

¹⁰⁴ Ibid.

¹⁰⁵ James I. Packer ed., *Daily Life in Bible Times*, 노광우 역, *성서시대의 일상생활* (서울: 성광문화사, 1992), 301-302.

¹⁰⁶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교회 - 기독교대백과사전* 2권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2), 19.

¹⁰⁷ Ibid.

때는 모이는 장소가 더욱 더 초라해졌고, 비밀스런 장소를 지칭하기도 했다.¹⁰⁸

그러나, 이 모든 장소는 성도들의 ‘모임 장소’에 불과한 것이고,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Hans Küng의 말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¹⁰⁹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며,¹¹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¹¹¹

‘사도행전 30년’ 동안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 되는 분위기이다.¹¹²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대제사장들은 제사장 나라를 끝까지 지키려 했고,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순간 제사장 나라가 종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 되었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며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다.

대제사장들은 제사장 나라와 그 동안 내려오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제자들과 대립하고 온갖 핍박을 가했다. 야고보와 스테반을 죽이고 위협하는 등, 노골적으로 박해를 했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전도를 방해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¹⁰⁸ James I. Packer ed., *Daily Life in Bible Times*, 노광우 역, *성서시대의 일상생활*, 302.

¹⁰⁹ Hans Küng, *Was ist Kirche?*, 이홍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분도출판사, 1991), 115.

¹¹⁰ Ibid., 128.

¹¹¹ Ibid., 145.

¹¹²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116.

제 III 장

성전 건축에 대한 성경적 믿음

제 II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성전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성전의 변천사는 한 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이다.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임재하느냐에 따라 성전의 장소와 모양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임재에 따른 성전의 변천사를 확대하면 다윗과 바울로 집중된다. 다윗은 건물 성전, 즉 눈에 보이는 성전을 확대한 사람이고,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확대한 사람이다. 다윗과 바울, 이 두 사람은 성전 건축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믿음은 ‘제사장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어느 누구도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 통치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 것이 다윗의 성전건축 시도였다.

성전 건축에 대한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 새 성전에 대한 충성’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이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 (복수, 교회공동체, 고전3:16)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 (개인의 마음성전, 고전6:19)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교회)을 세우고(양육, 제자화) 확장(선교)하려고 충성을 다하였다.

그리고, 성전건축에 있어서 또 하나의 믿음은 ‘통성경적 믿음’이다. 통성

경적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이 통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 중의 하나이다. 성전 건축에도 이 통성경적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성전건축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성전건축 중에 일어나는 문제를 극복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교회의 갈등을 최소화 할수 있다. 그래야 교회 건축이 평안하고, 축제가 되고,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다. 결국, 성전 건축의 Key Concept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통성경적 믿음, 이 세가지 믿음을 담는 것이다. 성전 건축이란 이 컨셉을 가진 사람이, 이 컨셉을 공유하고, 이 컨셉을 확장하기 위해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장에서는 교회 건축에 대한 성경적 믿음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믿음: 제사장 나라 성전에 대한 고찰

성전 건축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다윗이었다. 다윗은 500년 동안 내려오던 이동용 성막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건물 성전으로 대체하겠다는 도발적인 상상을 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만 받으시고, 건축은 솔로몬에게 넘겼다(대하6:7-9).

비록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려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대상29:1-19).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시도했던 ‘다윗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다윗의 마음’이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무엇인가? ‘다윗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다윗과 나단의 성전건축 이야기에 집중해야 한다. 사무엘하 7:2-3절에 보면 다윗과 나단의 대화가

나온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불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
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삼하7:2-3). 다윗이 나단에게 성전 건축
의사를 밝혔다. 이때 나단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cf, 대상17:1-2)
하고 답변한다. 다윗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
려고 작성한 결정적 마음이고 믿음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휘장 안에 있어서 성전 건축을 시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에 대한 충성’ 때문이었
다.

다윗은 500년 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작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
성” (출19:5-6)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있었기에 그 제사장 나라를 꿈꾸고, 그 제사
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

조병호는 제사장 나라(A Kingdom of Priests)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
야기 한다.

첫째,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히브리 장자들의 생명을 지켜 주어 그 기반 위에 제사장 개념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둘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이다. 5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
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제사장 나라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이다. 추수 때 밭
모퉁이 일부를 남겨 듕으로 소외된 자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제사장 나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이다. 율법을 지키
면, 5명이 100명과 맞서 싸워 이기고, 100명이 1만 명과 맞서 싸워도 이기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이다. 제사장은 법궤(언약
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다. 때문에 법궤를 모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제사

장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은 유월절에 목숨을 건진 이스라엘의 장자에서 그 개념이 나왔다.¹

다윗은 제사장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에,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한 절대적 충성으로 성전 건축을 시도했다. 또, 그 제사장 나라 제도를 기초로 해서 국정을 운영하려 했고, 그의 목표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것이었다.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는 왕정시대였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를 꿈꾸었다. 제사장 나라를 하는데 있어서는 왕정제도가 오히려 약점이었다. 그 이유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절대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500년의 왕정제도가 그랬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왕정제도를 반대했지만(삼상 8장),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으로 왕정제도를 허락하였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약점이었던 이 왕권을 가지고 오히려 제사장 나라에 대한 절대적 충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조병호는 제사장 나라와 왕정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²

<표2> 왕정과 제사장나라의 제도 대조

왕정제도	제사장 나라 제도
왕이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림
왕권 중심	백성 중심
계급 체계	어우러지는 공동체

¹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47-48.

² 조병호, *성경통독*, 160.

강자 중심의 명령 체계	사회적 약자 배려가 우선
--------------	---------------

성전을 건축하려던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7:1절 말씀을 주의해야 한다. 사무엘하 7: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한다. 이 때가 전쟁이 끝나고, 많은 땅을 확장한 시기였다. 다윗에게는 이때가 왕궁에서 편히 생활을 누릴 수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절대권력을 휘두르며, 거침없이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던 시기였다. 그런데, 다윗은 이 때 진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보고, 자신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 그런 제사장 나라를 꿈꾸었다. 다윗은 이 마음을 품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이 바로 성전건축이었다.

다윗은 자신이 왕정시대의 왕이지만,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어했다. 이것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모세(민16:13-15), 여호수아(수24:15), 기드온(삿8:22-23), 사무엘(삼상8:9)도 제사장 나라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 그들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제사장 나라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그 제사장 나라를 충실히 하려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고, 자신은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제사장 나라에 대한 절대적 충성으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원했다.³

하나님도 자신이 절대 주권자임을 분명히 했다. 다윗이 건축 의사를 밝힌 그

³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118-123.

날 밤,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했다. 하나님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 거했으며, 건물 성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삼하7:5-7). 그러면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참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한다(삼하7:12-13). “다윗은 현재 돌로 짓는 성전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 이전부터 영원히 지어질 성전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다.”⁴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하나님이 반대하신 것은 곧, 이 땅 위에 성전을 지을 자는 그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⁵

하나님은 “...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다” 며(대하6:8),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의 마음만 받고,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했다(대상17:1-15).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밝히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불러내던 날부터(삼하7:6)”,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고 말씀하셨다(삼하 7:8). 이것은 통치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이 되었던 땅에서 불러냈다, 다윗을 부를 때는 ‘내가 너를 양이나 치는 목장에서 불러냈다’ 고 하신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다. 내가 종살이하던 사람을 불러 내어 나라를 세웠다. 목장에서 양이나 키우던 사람을 불러 내어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잊을 수 없는 대비인데, 이 말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기를 원하니, 하나님도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왕이 되게 하겠다

⁴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사무엘하 제1-10장* (서울: 제자원, 2006), 483.

⁵ Ibid.

고 하였다(삼하7:12).

다윗이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는지 알 수 있다. 사무엘하 7:18-29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36번이나 ‘주’ 라고 불렀고, 자신을 11번이나 주의 ‘종’ 이라 부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 이라고 4번이나 부르고, 이스라엘 나라도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주의 땅’ 이라고 고백했다. 조병호는 “다윗이 가장 좋아하는 그에 대한 수식어는 ‘하나님의 종’ 이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내 종 다윗’ 이라고 부르시는 것에 대해 가장 크게 기뻐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종이라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주의 백성이라고 불렀다” 고 한다(삼하7:5,8).⁶

다윗은 왕이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어 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인 나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였다. 다윗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다.

성전 건축을 다윗의 왕궁보다 법궤가 있던 장막이 초라해서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영원히 다스려 주기를 소원했다. 즉,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고, 그것을 좀더 드러내고 싶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성전건축 시도였다.

다윗의 마음이 무엇인가? 다윗같은 경우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 이

⁶ 조병호, 성경즐거, 67.

었다. 성전 건축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이름이 머물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법궤는 계속 옮겨 다녔다. 그런데, 더 이상 여호와의 법궤를 이동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이름이 머무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결국, 다윗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삼하7:3)이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 그런 곳이 되도록 만들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건물(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윗은 건물(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기를 바랐다. 그 마음이 바로 ‘건물 성전’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을 추진했다.

예루살렘 점령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 제일 먼저 수도를 정해야 했고, 그 수도로 예루살렘을 선정했다.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민34:1-12). 그런데도 “모세, 여호수아 이후 400년이 지났음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예루살렘만은 점령하지 못한 채 지내오고 있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의 한 족속인 여부스족이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을 먼저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⁷ 여부스족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은 해발 640~770m의 성으로 천연요새와 같은 난공불락의

⁷ 조병호, *성경과 고대정치*, 97.

성이었다.⁸ 다윗은 “공성전을 피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급소를 쳐서 점령함으로써 예루살렘이 하루 아침에 ‘다윗 성’ 이 되었다.”⁹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지 1천 년 만에 이루어졌다.”¹⁰

수도를 옮김(천도 遷都)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과정은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나라의 지도자는 천도에 앞서 많은 장애물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수도를 과감히 옮겼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장 나라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만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어린시절 자랐던 베들레헴(삼상16:1)을 수도로 정하지 않았다. 사울이 40년 동안 정치적 기반을 쌓고, 왕궁을 짓고, 그곳에서 통치하던 기브아도 수도로 정하지 않았다(삼상15:34).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11지파를 데리고 2년 동안 마하나임에서 다스렸는데(삼하2:8-10), 다윗은 마하나임도 수도로 정하지 않았다. 자신이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다스리던 헤브론도 수도로 정하지 않았다(삼하2:11).

그 이유는, 헤브론은 유다 지파가 거기서 기득권을 행사하던 지방이었고,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가 거기서 기득권을 행사하고(삼상22:7), 마하나임은 이스보셋의

⁸ 조병호,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15), 436.

⁹ 조병호, *성경과 고대정치*, 98.

¹⁰ 조병호, *성경 통독과 통신학*, 115-116.

신하가 그곳에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 어떤 기득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려 했다. 다윗은 진짜 나라의 통치권은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가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진짜 통치권은 하나님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빼앗아 그곳을 수도로 정했다(삼하5:6-10).

제사장 나라 추진

다윗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윗은 그 군사력으로 제국을 건설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중요하다. “제국주의 속성은 기회와 힘이 주어지는 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가는 데 있다. 당시 많은 나라들은 틈만 나면, 또 힘과 기회만 주어지면 더 넓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곤 했다.”¹¹ 다윗은 33년 동안 얼마든지 제국주의로 나가기 위해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속성 때문이었다. 다윗은 130만 명의 군대가 있었지만(삼하24:9), 하나님께서 정해준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 이후 역사 기록을 보면 앗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앗수르 제국을 이끌었고, 페르시아 제국은 군인들의 수가 가장 많았을 때의 기록이 70만 명이었다.¹² 다윗에게는 앗수르보다 7배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 그가 끝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경계선을 넘지 않은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방식이 제사장 나라의 통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제사장 나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충실히 이행

¹¹ Ibid., 116.

¹²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134.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 다윗의 국가 경영의 목표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였다.

“다윗은 모세를 잘 이해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도 살아 남아 놀라운 민족이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다.”¹³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세운 예루살렘을 단순히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지로만 삼지 않고, 그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되기를 소망했다(신12:5,11, 14:23).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일 년에 세 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장소로 예루살렘을 세우고자 한 것이다(출23:14,17, 34:23). 이러한 꿈을 품은 사람이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았고, 그 민족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소망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었다.¹⁴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정해주신 국경의 범위를 넘지 않으려는 확실한 의지와 순종을 그의 삶을 통해 실현했다.”¹⁵

예루살렘으로 법궤 운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돌 판에 새겨 모세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돌에 십계명을 새겨 주신 것은 보존이나 전시 효과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법궤 안에 보관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함이었다.”¹⁶ “이 법궤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이

¹³ 조병호, *성경 통독과 통신학*, 117.

¹⁴ Ibid., 117-118.

¹⁵ Ibid., 118.

¹⁶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 나라*, 356.

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 이었다.”¹⁷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 할 때 만들어 진 것이라, 처음부터 이동용으로 만들어 졌다(민4:15).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법궤는 일정한 장소에 있지 못하고 여기 저기 옮겨 다녔다.¹⁸ Leon Wood는 아백 전투(삼상4:1-11)가 주전 1075년에 일어났고, 다윗이 주전 1003년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기에 때문에 법궤가 70년 이상 떠돌아 다녔다고 한다.¹⁹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온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다(대상13:3).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여호와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토록 소중한 성물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 오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단지 짧은 자신의 생각에 기반한 정치 명령이 내려지는 곳에 머물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한 여호와와의 율법이 세워지는 곳으로 확립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품은 것이었다.”²⁰ 이는 국가 권력의 목표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다윗이 법궤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는 법궤 운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 빼어난 군사 3만 명을 동원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 혼자 나가 싸웠다. 여부스족 한테서 예루살렘을 빼앗을 때는 군사 600명으로 해결했다. 그런 그가 법궤 운반을 위해 빼어난 군사 3만 명을 동원했다는

¹⁷ Ibid., 357.

¹⁸ 법궤 이동 경로: 실로(삼상4:4) → 블레셋 아스돗(삼상5:1) → 블레셋 가드(삼상5:8) → 블레셋 에그론(삼상5:10) → 벤세메스(삼상6:11) → 기랴트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삼상7:1-2, 삼하6:1-10) → 가드 사람 오벰에돔의 집(삼하6:11) → 예루살렘(삼하6:12-17).

¹⁹ Leon Wood, *A Survey of Israel's History*, 김의원 역, *이스라엘의 역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306-307.

²⁰ 조병호, *성경과 고대정치*, 99-100.

것은 법궤 운반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다.”²¹

다윗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다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가 놀라 뛰자 옷사는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 이 일로 옷사가 죽고 다윗은 법궤를 오벰에돔의 집에 안치했다(대상13장). 법궤가 오벰에돔의 집에 3개월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대상13장). 이때 다윗은 옷사가 죽게 된 원인이 자신의 무지였음을 깨달았다. 고향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자신이 수레에 싣고 운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향 자손을 동원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했다(대상15:15).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됨으로써 예루살렘은 단순한 국가 행정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는 시온 산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제 예루살렘은 제사장 나라의 법치 센터로 세계적인 기지가 되게 된다.”²² “이제 법궤의 입성으로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되었다. 1년 세 차례 명절(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율법에 의해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다(신16:16-17).”²³

성전건축 시도

건물이 움직이지 않듯이 성전건축은 부동성(不動性)을 의미한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시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임재)의 상징이며, 실질적으로 다윗은 그랬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이다. 다윗은 진짜 통

²¹ Ibid., 100.

²² Ibid.

²³ Ibid., 103.

치권은 하나님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기득권이나 통치권이 없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왔고, 성전 건축을 시도했다. 하나님만 통치권, 주권을 가져야 된다면 이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

다윗이 건축 의사를 밝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만 받고(대하6:8), 건축은 솔로몬에게 넘기셨다(대하6:7-9). 그 이유는 첫째, 다윗이 전쟁을 통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것이다(대상22:8). 둘째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그 건물은 제국주의 건물이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주변의 국가들이 앞다투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상황이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주변 나라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건축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진심에서 우러나와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참여하게 되고, 또 생색내기 위해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²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

설계도 대로 건축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설계도대로 하라. 둘째, 너는 준비만 하라. 셋째, 시공은 솔로몬이 하라”는 것이었다.²⁵ 이것은 이 성전이 다윗의 성전도 아니요,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설계도대로 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짓고 싶었을 것이다. 왕들의 건축물은 자고로 크고, 화려하고, 위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설계도대로 지었기 때문에 크지 않았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헤롯 성전을 비교해 보면 쉽게

²⁴ Ibid., 102.

²⁵ 조병호, *통 성경학교*, 24.

알 수 있다. 헤롯 성전은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지었기 때문에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다. 요세푸스는 헤롯 성전에 대해 “이 성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만드는데 사용된 값비싼 물자들과 그 규모, 그리고 그 예술성에 감탄하였다” 고 한다.²⁶ 또 헤롯 성전은 “성전 주위에 헤롯이 아랍에서 가져온 것과, 다른 야만국(이방인) 등에서 빼앗아 헌납한 약탈 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고 한다.²⁷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었기 때문에²⁸ 헤롯 성전에 비하면 규모가 작았다.²⁹

예루살렘 성전은 설계도대로 지었고, 다윗은 준비만 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자신이 활동했던 당대에 건물을 짓고, 자기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한다. 다윗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 만약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면 다윗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볼 때 다윗의 위대한 업적으로 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윗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앞서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것은 성전건축의 본질적 목적과 어긋난다. 성전의 본질적 목적은 사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재료만 준비만 했기에 다윗의 성전도 아니고, 솔로몬은 다윗과 백성들이 준비한 재료로 시공만 했기에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한 후에 주께서 하셨다고 고백했다(대하6:10, 15).

성전 건축이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는 선언이다. 다

²⁶ Josephus, *The Antiquities of the Jew, Books 12-15*, 성서자료연구원 역 *하버드판 요세푸스 5권 유대고대사 III* (서울: 달산, 1992), 579.

²⁷ Ibid., 580.

²⁸ 1)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 길이 27m, 폭 9m, 높이 13.5m(왕상6:2), 2)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소의 규모: 길이 21m, 폭 10.5m, 지성소: 길이와 폭 10.5m(겔41:1-4). 3) 스투바벨 성전: 높이와 폭이 27m(스6:3-4). 현대인의 성경에서 수치 참고.

²⁹ 헤롯은 옛 건물을 헐고 그 위에 새 성전을 세워 길이가 100 규빗이나 되고 높이가 전보다 20 규빗 더 높은 성전을 지었다. Josephus, *The Antiquities of the Jew, Books, 12-15*. 성서자료연구원 역, *요세푸스 5권 유대고대사 III*, 577-578.

위의 성전을 보면 그랬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을 통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는 신앙 고백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 성전 건축이 되어야 한다.

성전 건축에 대한 바울의 믿음: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에 대한 고찰

성전 건축에 대한 또 한 사람의 경우가 바울이다. 다윗이 유형교회를 확장한 사람이라면 바울은 무형교회를 확장한 사람이다. 성전 건축에 대한 바울의 믿음은 한 마디로 ‘하나님 나라 새 성전에 대한 충성’ 이었다.

사도 바울은 1,500년 전 모세시대 때 시작한 제사장 나라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 제사장 나라를 꿈꾸었고, 그 제사장 나라의 삶을 충실히 살았다(행22:1-5, 빌3:1-6).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대제사장이 퍼뜨린 소문을 그대로 믿었다. 대제사장이 퍼뜨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첫째, 신성 모독자였다. 자신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것이다(마26:63-65, 27:41-43). 둘째, 성전 모독자였다.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 2:19)고 했는데,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가지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이었다(마 26:61, 27:40).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대제사장이 퍼뜨린 소문을 그대로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신성 모독자, 성전 모독자로 알고,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 섰고(행7:58),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집집마다 찾아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행8:3).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홀연히 하늘에서 빛이 비추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울이 “주여 누

구시니이까” 하고 물었다. 이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행9:1-9).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認識)하였다.

성전 기능의 종료와 새 성전의 창조

사도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는데(요2:19-22), 그렇다면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성전을 헐고, 부활을 통해 새 성전을 다시 세웠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다시 지은 분이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이 끝났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너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건물 성전은 당연히 무너진 것이고, 예수님이 새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요19:30) 선포하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마27:51, 막15:38, 요23:45). 그 순간 바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해하였다(교회: 그리스도인 개인의 마음 성전과 예배 공동체). 사도 바울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The Moment)’ 성전의 기능이 종료되고, 이제는 ‘성전(Temple) 시대에서 교회(church)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것을 인식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법을 주면서 그대로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출25-27장). 그 성막의 설계법을 보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

었다(출26:33). 하나님이 이것을 만든 이유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1,500년 간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다윗에게 성막형 성전 설계도(대상28:10-19, 대하3:1-14)를 주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 성전이 불타든 안 타든 1,000년 동안 이것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 솔로몬 성전과 스투바벨 성전이 있다. 솔로몬 성전과 스투바벨 성전 사이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미래의 새 성전’ 예언(“건물성전이 아닌 마음 성전의 밑그림을 그려 주심”³⁰)이 있다(렘31:33, 겔36:26-27).

스투바벨 성전(B.C 515년 재건)은 솔로몬 성전을 모방 한 것이고, 헤롯 성전은 B.C 63년경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Pompeius, B.C. 106-48년)에 의해 파괴된 스투바벨 성전을 B.C 20년경 헤롯이 개축한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도는 다윗에게 준 것으로 끝이 났다. 그 설계도대로 만든 것이 중요하다. 다윗에게 준 설계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뒤 1,0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이 휘장이 찢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1,000년 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요 19:30)고 선언하는 ‘그 순간(The Moment)’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막15:38).

“다 이루었다.”(요19:30)는 말은 “ ‘완수하다’ , 혹은 ‘끝내다’ 라는 뜻으로 쓰인 그리스어 동사는 *teleo* 인데, 요한에서는 특히 중요한 단어이다. 여러 번 이 동사와 이 동사의 파생어가 예수의 사명을 요약하는 발언이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맡긴 ‘일의 완수’ 를 말할 때 쓰인다.”³¹

이 텔레오(*teleo*) 는 신약성경에서 총 29회 사용되었다. ‘마치다(finished)’ 로 8번(마7:28, 11:1, 13:53, 19:1, 26:1, 요19:30, 딤후4:7, 계

³⁰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361.

³¹ Donald Senior, CP, *The Passion of Jesus in the Gospel of John*, 박태원 역, *요한이 전하는 예수의 고난* (왜관: 분도출판사, 2014), 167.

11:7),³² ‘완료하다(completed)’ 로 4번(눅12:50, 요19:28, 계15:1,8),³³ ‘성취하다(fulfilled)’ 로 4번(눅18:31,22:37,요19:28,계17:17),³⁴ ‘끝나다(ended)’ 로 2번(계20:3,5),³⁵ ‘세금을 지불하다(pay)’ 로 2번(마17:24,롬13:6),³⁶ 그 외에 기타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고 선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한 승리자의 선언” 이며,³⁷ 동시에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는 선언이다.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성소와 지성소의 핵심(key point)은 하나님의 사면, 즉 죄 용서이다. 하나님은 레위기의 5가지 제사 방법(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을 통해 개인이 죄 용서 받을 길을 열어 주었고, 제사장도 죄를 범했을 경우는 하나님께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레4:3-4), 개인의 죄를 넘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레4:13-21).³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용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매년 7월 10일(대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날로 정해 주었다(레16:29-31). 이날 대제사장은 정해진 예복을 입고 지성소(Holy of Holies)에 들어가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³² Edward W. Goodrick & John R. Kohlenberger III, Donald L. Potts & James A. Swanson, Associate Editors, *The NIV Exhaustive Concordance* (London: The Zondervan Corporation, 1990), 399.

³³ Ibid., 223.

³⁴ Ibid., 426.

³⁵ Ibid., 346.

³⁶ Ibid., 864.

³⁷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51.

³⁸ Ibid., 61-63.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해야 했다. 하나님은 이날에 그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즉, 이 제사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1년 간 효력이 있는 제사였다(레16:32-34).³⁹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임무를 완성하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졌다(출26:31-34, 마27:51). “이는 예루살렘 성전 안의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장소였던 지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 그리고 이방인의 뜰 사이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음을 의미” 한다.⁴⁰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양이 되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의 죄를 한꺼번에 다 대속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을 통했던 하나님의 사면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순간부터 대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사면권은 그 기한이 종료되었다.⁴¹ 이것은 1,500년 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마침내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며, 대제사장의 제사를 통하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새로운 통로가 되었다.⁴²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 문제와

³⁹ Ibid., 64.

⁴⁰ Ibid., 364.

⁴¹ Ibid., 365.

⁴² Ibid., 299.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⁴³

새 성전을 건축한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성전을 헐고, 부활을 통해 새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면 그 새 성전을 어디에 건축했느냐? 했을 때 바울은 그 장소를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 첫째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고, 둘째가 그리스도인 개인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16절에서 새 성전으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고린도전서 6:19절과 고린도후서 6:16절에서는 새 성전으로 ‘그리스도인 개인(마음성전)’을 말하고 있다.

새 성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고전3:16-17)⁴⁴

“예수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면서, 자신이 새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할 때, 그는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모으겠다는 뜻이었다.”⁴⁵

하나님의 ‘성전(naos)’이라고 할 때, 바울은 건축물 자체가 아니라 성전의 특성인 ‘거룩’에 관심을 표한다. 바울은 성소(聖所)로서의 성전에 관심이 없다. 성전은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회복을 체험하는 장소요 공간이다. 바울에 따르면 성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모두 달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⁴³ Ibid., 300.

⁴⁴ 조병호는 “교회는 제사장 나라의 성전의 소중한 의미를 그 안에 함축하고 있다. 성전(Temple)은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소중한 장소(place)였고, 교회(Church)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이다”고 한다. Ibid., 318-323.

⁴⁵ 김세윤,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서원, 2007), 79.

오신 이후 성전은 계속 존립할 근거를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전보다는 ‘성령이 너희 안에’ 라는 개념을 더 선호한다(롬8:9, 11, 고전6:17, 19, 7:40, 고후1:22, 살전4:8, 갈4:6).⁴⁶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합체인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바울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전체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면서(고전3:9),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다.”⁴⁷ William Barclay 는 “바울에게 교회란 하나님의 성전 바로 그것이었다.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고 한다.⁴⁸

고든 피는 고린도전서 3:16절에 나오는 성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전 경내(관할 구역)를 의미하는 ‘hieron’ (ἱε ρ ο ν)이라는 단어와 달리, 여기서 쓰인 ‘naos’ (να ο ς)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 즉 성소의 의미로 쓰여졌다. 사도 바울에게 이 이미지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비록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곧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해는 다음 두 가지 자료에서 나온 것이었다. 여러 자료에 등장하는 유대 종말론적 소망(Jewish eschatological hopes)과, 예수께서 사흘 안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한 예수에 관한 기록 자료(tradition)이다. (종말론적) 성령이 거하는 곳으로의 교회를 현재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오는 성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겔40-48). 곧, 겔40장-4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고(겔43:9) 약속하셨고, 새로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⁴⁹

⁴⁶ 조광호, *고린도전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95.

⁴⁷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고린도전서 제1-9장* (서울: 제자원, 2006), 235.

⁴⁸ William Barclay, *The Letter to the Romans, Corinthians*, 편찬위원회 역,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서울: 기독교문사, 2009), 349.

⁴⁹ Gordon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Revised edition 2014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4), 158.

고든 피(Gordon D. Fee)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언급한 부분은 예배를 위해 모인 공동체, 곧 하나님이 거주하시는(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한다. 즉, 개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다. 바울에게 교회란 하나님의 성전 바로 그것이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⁵⁰

사람이 지은 전이 하나님이 거주하실 만하지 않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말하고 있다(사66:1, 왕상8:27). 스테반의 설교(행7:48-50)에서 그는 예언자를 인증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복음서에서도 예수께서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였다(막13:2).⁵¹

“성전이 교회로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이다.”⁵²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갈 5:18a,25). 그들은 더 이상 성소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얽매인 삶을 살지 않는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신앙인들이 예배 드리고 주님이 선포, 증거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고전14:25, 5:4, 마18:20).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이름(왕상8:16-20), 영이 거하시는 곳이다. ‘우리=성전’ 이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전3:16).”⁵³

“이제 고린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러나 고린도 신자들은

⁵⁰ Ibid., 160.

⁵¹ 전경연, *고린도전서*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1), 98.

⁵²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55-256.

⁵³ 조광호, *고린도전서*, 95-96.

어떤 건물도 갖지 않았으며, 그들이 바로 건물이었다.”⁵⁴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이 몸소 그들 속에,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고린도에 당신의 거소를 세우셨다.”⁵⁵ “이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 주 예수가 임재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영을 통해 체험했다(고전5:4-5).”⁵⁶ “새로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회집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신다. 성전은 성령에 ‘의해서’ 형성된다. 따라서, 성전은 성령의 거주처이다.”⁵⁷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고 그것을 통해 한 몸을 이루어 서로에게 연합한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함께 모임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다.”⁵⁸

“초대 교회 신자들은 ‘교회’ 라고 부를 수 있는 건물이 없었고, ‘교회에 가지’ 도 않았다. 그들 자신이 교회였다.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들 자신이 ‘교회로서’ 함께 모였다(고전11:18).”⁵⁹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성전으로 언급하면서, ‘교회의 머리’ (엡1:22)는 예수님이요, ‘교회는 그의 몸’ (엡1:23)이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 라고 한다(고전12:27).

박형룡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은 두 가지 특이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교회와 만물의 머리가 되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스

⁵⁴ Gordon D. Fee, *God's Empowering Presence: The Holy Spirit in the Letters of Paul* (Cambridge, MA: Hendrickson Publishers), 116.

⁵⁵ Ibid.

⁵⁶ Ibid., 115.

⁵⁷ Gordon D. Fee, *Paul, the Spirit, and the People of God* (Cambridge, MA: Hendrickson Publishers, 1996), 69.

⁵⁸ Ibid, 72.

⁵⁹ Ibid, 71.

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표현과(엡1:22),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엡1:23)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문맥에 비추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권위가 만물에까지 미치는 것을 강조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지만, 그의 통치의 권한은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요, 만물에까지 미친다고 한다.⁶⁰

바울은 에베소서 1: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한다. ‘충만(πληρωμα)’을 수동적인 의미로 해석하느냐, 능동적인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능동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케 한다는 뜻이고, 수동으로 해석하면 교회가 ‘채우는 것’이 아니요, ‘채워지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인 까닭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케 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채워지는 것이다.⁶¹

새 성전으로서의 ‘마음 성전’ (고전6:19, 고후6:16)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 순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종료되고 새 성전이 창조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면 새 성전을 어디에 지었느냐, 바로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다(고전6:19, 고후6:16).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개인이

⁶⁰ 박형용, *에베소서 주해* (서울: 두란노서원, 1990), 78.

⁶¹ 박형용, *에베소서 주해*, 79.

‘성전’ (마음성전) 이라는 것이다.⁶²

바울은 몸을 성령의 전이라 말할 때, 먼저 교회 전체에 속하는 이미지를 채택하고 이어서 이 이미지를 각 신자에게 적용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16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영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며, 이 성전은 모든 이방 종교의 신전이나 사당들과는 다른 것이라고 한다. 바울은 이제 성령의 내주라는 현상에 근거하여 몸을 성령의 전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하면서, 이 몸이 각 신자들의 삶 속에서 성령이 거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수용하는 곳’이었듯이, 신자의 몸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수용하는 곳’이 되었다.⁶³

예수님은 죄인들의 자유를 사기 위해 값을 지불하고자 대신 돌아가셨다(엡 1:7, 벧전1:18-19). 그분의 보혈이 희생제물이 되어 신자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령이 거하게 되었다. 즉, 그들의 몸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였던 것이다.⁶⁴ “그날 이후 지금까지 각 성도들은 자신의 영 안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롬 8:9, 고전6:19, 딤후1:14)”⁶⁵

성전으로서 ‘공동체’와 성전으로서의 ‘개인’,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

⁶²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장소였는데, 이 예루살렘은 천 년 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 되고, 그 이후 건물 성전의 기능이 종료됨과 동시에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되었다. 조병호, *성경과 교대정치*, 103-104.

⁶³ Fee, *God's Empowering Presence*, 135-136.

⁶⁴ Bruce B. Barton, Greg Asimakoupoulos, Jonathan Farrar, Dave Veerman, *Life Application Bible Commentary, 1 Corinthians*, 김진선 역, *LAB주석시리즈 고린도전서*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4), 150.

⁶⁵ Bruce B. Barton, Greg ASimakoupoulos, Jonathan Farrar, Dave Veerman, *Life Application Bible Commentary, 2 Corinthians*, 김진선 역, *LAB주석시리즈 고린도후서*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4), 186.

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3:16절에서는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부각하는 것이라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개체적인 몸으로서 성령의 전”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⁶⁶

“고린도전서 3:16-17절의 주된 관점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공동체’인 반면, 고린도전서 6:19절의 주된 관점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으로서의 ‘몸’, 즉 ‘개인’”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3:16절에는 ‘너희’가, 고린도전서 6:19절에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16절이 교회론적 접근이라면, 고린도전서 6:19절은 개인 윤리 차원의 접근이다.”⁶⁷ 고린도전서 3:16절에서는 교회의 일치성과 순수성이 문제가 되자 교회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상기시킨 것이고, 고린도전서 6:16절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삶의 순수성이 위협받자, 성령이 각 그리스도인 속에 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⁸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장소가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끝나고, 성령이 성도의 공동체(또는 마음 성전)안에 임재하므로, 성도의 공동체(또는 그리스도인 개인의 마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라고 이해했다. 즉, 성도의 마음(또는 교회 공동체)이 새로운 성전이요, 그것이 교회라고 인식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을 ‘성도 개인의 마음’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보았다. 따라서,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누구이냐? 믿는 사람이다. 바울의

⁶⁶ 김지철, *고린도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267-268.

⁶⁷ 조광호, *고린도전서*, 160.

⁶⁸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고린도전서 제1-9장*, 401.

성전 개념에는 이 정체성(正體性), 이 믿음이 들어 있다.

따라서, 바울이 ‘성전이다’ 고 했을 때, 이 말을 성전의 변천사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발전된 개념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것, 이 부분이 바울의 성전에 대한 믿음이었다.

성전건축에 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에 대한 충성’ 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도 개인(마음성전)과 교회 공동체를 건축하고 확장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1,2,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겼던 서바나로 가기 위해 로마 교회에 선교협조 편지(로마서)까지 보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에 온갖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래서 사정상 자신이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보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안정시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 13권이다.⁶⁹ “바울의 대표적인 교리 서신으로 간주되는 로마서조차도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관심의 결과로 나왔다.”⁷⁰ 바울의 새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었다. 복음을 전해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었다.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 새 성전에 대한 헌신, 충성이었다.

조병호는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말한다.⁷¹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히브리 장자들의 목숨을 건졌듯이,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대속

⁶⁹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119-123.

⁷⁰ 이광순, 이용원, *선교신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83.

⁷¹ 조병호, *제사장나라 하나님 나라*, 220-221.

되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길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부터 시작된 나라이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이다. 천하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다(마16:25-26).⁷²

셋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 라고 부르는 나라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을 통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라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마6:9-13).

넷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더 이상 성전의 성소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구분이 필요없어졌다(막15:37-38).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1,000년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모두 종식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한 제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이다. 제사장 나라가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였다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이다. 이는 성전이 교회로, 그리고 장자가 제자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Gordon D. Fee는 “이제 교회가 회복해야 할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곧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재하는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하나님의 대안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고 한다.⁷³

C.S Lewis 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람들을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모든 사제들, 목회자들, 선교들, 설교들, 그리고 심지어 성경 그 자체도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고 한다.⁷⁴ 오늘날 많은 교회가

⁷² 사람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면 약 700원의 가치가 있다. 이규태, *눈물의 한국학* (서울: 기린원, 1992), 208-209. 또 인신매매의 역사를 보면 백인, 흑인 노예, 황인종 모두 황소 한 마리의 가격이었다. 고대 부여(扶餘)나 고구려 때도 황소 한 마리 가격 남짓 했다. Ibid., 238-239.

⁷³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162.

⁷⁴ Michael Frost & Alan Hirsch, *ReJesus: A Wild Messiah for a Missional Church*, (Cambridge, MA: Hendrickson Publishers, 2009), 17.

기복신앙에 빠져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는(마28:19) 예수의 위대한 명령을 등한시하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는 이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선교적 교회(The Mission Church)’ 로 세워야 한다.⁷⁵

ReJesus의 저자인 F. Michael과 H. Alan은 선교적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the Missio Dei, the participatio Christi, and the imago Dei” 이다.⁷⁶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는 “the Sending God (the Missio Dei)” 이다.

둘째, 교회는 그러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으로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작은 예수’ 로서 참여해야 한다(the participatio Christi).

셋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악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the Imago Dei). 그렇기 때문에, ‘작은 예수’ 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상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오는 위대한 사명에 참여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과 성전에 대해 오해하고 교회를 핍박했으나(행26:8-12),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새 성전(교회)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하고, 새 성전을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 목숨을 다해 수고하였

⁷⁵ 김명룡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전위대”라고 하면서,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사탄을 몰아 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수립하는 싸움의 제일선에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고 한다. 김명룡,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8), 49.

⁷⁶ Frost & Hirsch, *ReJesus*, 24-35.

으며(고후11:23-30), 심지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한다(갈6:17).

“이 흔적들은 그가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하여 당한 위험, 고난, 감옥생활, 매맞음 등에 의해 그의 몸에 남은 자국이다.”⁷⁷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대제사장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 고소하면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같은 자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고 고소할 정도였다(행24:5-6). 여기서, ‘전염병’은 페스트(黑死病)이다.⁷⁸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부정적으로 한 말이지만, 역(逆)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전건축에 대한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에 대한 충성이었다. 우리는 성전(건물)이 필요하고, 이것을 건축한다.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성전(건물)을 건축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은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고 선언하는 순간 성전시대가 종료되고, 교회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인식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만인 제사장’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1,500년 동안 대제사장을 통해 매년 갱신하던 하나님의 사면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종료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면권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바뀌게 되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히 특별사면을 받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누구나 ‘만인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 안

⁷⁷ 갈6:17 “흔적”, 이병철, *바이블렉스 9.0 DVD* (서울: 브니엘성경연구소, 2013).

⁷⁸ 행24:5 “전염병”, 이병철, *바이블렉스 9.0 DVD*.

에 거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교회당(敎會堂) 건축이란, 만인 대제사장이 된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죄사함 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한다는 이 개념(concept)을 가지고, 이 컨셉을 공유하고, 이 컨셉을 더 키우기 위해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이다.

둘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교회: 그리스도인 개인의 마음성전 또는 교회 공동체)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다. 바울에게 있어서 새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있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양육과 제자화), 교회를 확장(선교)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었다. 그러므로 교회당 건축이란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에 대한 충성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충성했던 것처럼, 교회당 건축이란 위의 두 가지 컨셉을 가진 사람이 이 컨셉을 공유하고, 이 컨셉을 더 키우고, 이 컨셉을 더 확장하기 위해 건축하는 것이다.

성전건축에 대한 통(通)성경적 믿음: 성경에 나타난 통성경적 믿음 고찰

믿음에 대한 용어 정의

믿음에 해당하는 구약의 단어는 ‘아만(aman/אמן)’으로, 확실하다, 확신하다(존재, 가치, 인격, 인격을 믿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멘’이다.⁷⁹ 믿음에 대한 신약 단어는 ‘피스티스(πιστις)’이다. “성경에서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요3:34,

⁷⁹ R. Laird Harris, Gleason L. Archer, jr, and Bruce K. Waltke,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Vol. 1, 번역위원회 역, *舊約原語神學辭典(上)* (서울: 요단출판사, 1986), 63-65.

5:38), 순종하다, 소망하다, 의지하다, 성실하다” 는 뜻을 가지고 있다.⁸⁰

이 말의 구체적인 기독교적 용례를 보면 메시지를 받아 들이는 것이다. 복음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이는 것(그것은 구원은 가져다 줌)을 의미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속에는 믿음, 순종, 의지, 소망, 충성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것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의 아들 안에서 그를 통해 구원을 가져오신 한 분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것을 의미한다.⁸¹

믿음의 내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그의 부활은 죄를 위한 그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고전15:11, 롬4:24, 살전4:14, 빌2:6).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⁸²

Donald K. McKim은 “믿음(Faith)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순종 등을 말한다. 믿음은 구원(엡2:8-9)이나 영원한 생명(요 6:40)의 수단이다. 믿음은 지성, 감성, 의지 등, 인간 존재의 모든 면에 영향을 준다” 고 한다.⁸³

Kevin J. Vanhoozer 는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구약성경의 이야기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그린다. 해당되는 히브리어 명사 ‘*emunah*’ 는 주로 진리, 정직, 혹은 충성, 특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 Hiphil 양식의 동사

⁸⁰ Gerhard Kittel., Gerhard Friedrich,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번역위원회 역, *新約聖書神學辭典(上)* (서울: 요단출판사, 1986), 955.

⁸¹ Ibid.

⁸² Ibid.

⁸³ Donald K. McKim,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Theological Terms, 2nd ed.*,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4), 115.

‘*mn*’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충실한 신뢰와 순종 안에서 타당한 응답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믿기 힘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함으로써 약속된 상속을 위해 길을 떠났고,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는 엄청난 말씀에도 기꺼이 순종하였다” 고 한다.⁸⁴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성경의 믿음은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비신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신자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다. 통 성경적 믿음이란 이 두가지를 다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교회 건축에 관한 믿음 고찰’이라, 이차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

족장시대 이전

족장시대 이전에 나타난 믿음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다(창4:1-14).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그 이유는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이다(히11:4).

족장시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에는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창12:10). “창세기 12장 10절의 시작과 끝에 반복된 기근의 언급과 그것의 심각성의 묘사는 이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⁸⁴ Kevin J. Vanhoozer, ed., *Dictionary for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Company, 2005), 226.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발견한 아브람이 그 곳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굶어 죽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한다.”⁸⁵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굶어 죽더라도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 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아브라함은 심각한 기근 때문에 애굽에 ‘체류하기 위하여(to sojourn there)’ 어쩔 수 없이 여행을 떠났다. Cassuto는 ‘체류하다(to sojourn)’는 짧은 기간의 방문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시로 잠시 동안 머물기 위함이었다” 고 믿는다.⁸⁶ 반면에, Wenham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민자로서 “장기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갔다” 고 주장한다.⁸⁷ 이러한 견해는 예레미야 14:8절의 짧지 않은 긴 기간의 정착에 대한 언급들과 같은,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 나타나는 같은 ‘체류하다’ 라는 동사의 발견들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 갈 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기한으로 그곳에 정착할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⁸⁸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 믿음에 실패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기 원했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감으로 인해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믿음의 훈련을 받은 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고(창22장), 마침내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약2:23).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행동했을 때, 저주가 세상에 내려졌다(창12:17). 이스라엘의 믿음과 믿음 없음은 이스라엘 자신들에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

⁸⁵ James McKeown, *Genesis* (Grand Rapids, Michigan /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8), 80-81.

⁸⁶ Umberto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2: From Noah to Abraham* (Jerusalem: Magnes, 1961-64), James McKeown, *Genesis*, 81에서 재인용.

⁸⁷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BC* (Waco: Word, 1987), James McKeown, *Genesis*, 81에서 재인용.

⁸⁸ McKeown, *Genesis*, 83.

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⁸⁹ “이집트에서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들의 관리인들이 축복과 더불어 책임이 있고 반드시 그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⁹⁰

이삭 때에도 흉년이 있었다(창26:1-11). “당시에는 기근이 발생하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관례였다. 이삭 역시 애굽으로 가려고 계획했다. 풍성하고 신선한 나일강의 물을 땅에 댈 수 있었기에 이집트에는 좀처럼 가뭄이 들지 않았기 때문” 이었다.⁹¹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로 갈 준비를 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떠나지 말라고 명령한다(창26:2). 하나님은 만약 이삭이 그 땅에 머무른다면, 그 땅을 그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그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창26:1-5). 게다가 모든 나라들이 그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은 안심하고, 그 기근이 곧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다.”⁹²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팔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되었다(창25:31-33). “장자권은 재산 상속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계승하는 특권이다.”⁹³ 그런데, 야곱은 단순히 물질적 축복으로 이해하였다. 야곱이 장자권을 산 이후 축복은커녕 오히려 온갖 고난을 겪게 되었다(창27:41-45, 29:25, 31:7, 31:1-2, 31:20-23, 32:6).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위기 때마다 찾아와 하나님

⁸⁹ Walter Brueggemann, *Genesis.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1982), 129, James McKeown, *Genesis*, 82-83에서 재인용.

⁹⁰ McKeown, *Genesis*, 83.

⁹¹ Wilbur Glenn Williams, *Genesis: A Bible Commentary in the Wesleyan Tradition*, (Fishers, IN: Wesleyan Publishing House, 2000), 199.

⁹² McKeown, *Genesis*, 129.

⁹³ 기독교회사, *카리스종합주석 제4권, 창세기24-30장* (서울: 기독교회사, 2003), 228.

을 잘 믿겠다고 서원했던 그 벤엘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창28:10-22, 31:3,13, 35:1). 그러나 야곱은 계속 지체했고, 또 다시 큰 위기를 당한 후 그때서야 벤엘로 올라가게 되었다(창35:1-15). 야곱은 많은 고난을 통해 장자권이 당시 풍습처럼 물 질적 축복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손자(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당시의 문화와는 다르게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 손을 얹고,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어 축복했다(창48:10-20).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기근으로 고생하는 자신의 가족을 모두 애굽으로 초대하였다(창46:27). 요셉은 자신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자, “정치적인 선택을 거부하고 신앙적 선택”을 하였다.⁹⁴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들을 애굽의 고위 정치인과 결혼시켜서 자신의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쌓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70명의 가족을 고센 땅으로 격리시켜 애굽과 혼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요셉은 두 민족이 근본적으로 섞일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그 이유는, 지금은 기근으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 왔지만, 언젠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셉의 이 선택이 있었기에 이후에 출애굽이 가능하게 되었다. 만약, 요셉이 신앙적 선택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면, 야곱의 후손이 애굽 사람과 하나 둘 혼인을 하게 되고, 마침내 애굽 문화에 동화되었을 것이다.⁹⁵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세계 경영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꿈꾸셨던 하나님의 그 꿈은 물거품이 되고, 출애굽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이

⁹⁴ 조병호, *성경 통독과 통신학*, 103.

⁹⁵ Ibid.

다.”⁹⁶ 또, 요셉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을 믿었기에(창 50:24), 임종하면서 언젠가 출애굽 할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유언했다(창50: 22-26).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에 나왔더니,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주면 좋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네가 애굽 군대에 의해 홍해에서 몰살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네가 목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배가 고파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기 원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불신하고 원망했다.⁹⁷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그들은 한 번도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⁹⁸ 결국,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다(민14:22-30).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비록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 짓는 결정적 차이였다.

⁹⁶ Ibid.

⁹⁷ 홍해 앞에서(출14:10-14), 마라의 쓴 물(출15:22-26), 만나와 메추라기(출16:1-16;민11:1-35), 트리바 우물(출17:1-7;민20:1-13), 가데스바네아(민13:25-14:10).

⁹⁸ 출14:10절의 ‘부르짖었다’는 말도 두려움의 반응이었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다.

사사시대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신신당부(申申當付)했고, 여호수아도 죽으면서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을 떠났고, 그 결과 350년의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되었었다. 그래서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고 한다(삿17:6, 21:25). 이런 영적 암흑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룻과 보아스였다. 룻과 보아스는 영적 암흑시대에 핀 한 송이의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었다.

왕정시대

이스라엘은 왕들이 다스렸던 500년의 왕정제도가 있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42명의 왕들과 그 시대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 기록해 놓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정제도 500년의 역사를 단 하나로 평가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여로보암의 길 VS 다윗의 길). 하나님은 왕들을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이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었고, 이스라엘 왕정 500년을 그 믿음 하나로 평가하였다.

포로시대

하나님은 믿음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였다.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사마리아가 사마리아인(혼혈족)이 되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였다. 믿음에 실패한 남유다의 모습은 처참했다(렘52장). 이것은 왕정제도가 얼마나 처절하게 믿음에 실패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믿음에 실패

한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였다(렘25:11-12, 29:10, 단9:2). 이 바벨론 포로 70년은 “ 1) 징계 70년, 2) 교육 70년, 3) 안식 70년, 4) 바벨론 제국 수명 70년” 이었다.⁹⁹ 70년 동안 재교육을 받은 이스라엘은 과거에 비하면 믿음이 많이 좋아졌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등이 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시도하게 되는데, 앗수르에 의해 예루살렘에 심겨진 이방민족이 성곽과 성읍을 짓는다며 허위 상소하는 바람에(스4:12), 성전 건축이 16년동안 중단하게 되었다(스4:17-24). 이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다시 성전 재건을 촉구하였다(학1:12-15).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왕의 명령없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고,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스6장, 학2:6-9). 그래서 성전 건축을 순조롭고 신속하게 완료하게 되었다(스6:13-18).

예수님 시대

공관복음서의 믿음(πιστις)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 공식 어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막5:34 병행 10:52, 병행 눅7:50, 17:19)” 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8:13, 9:29, 15:28)이다.¹⁰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며, 믿음은 곧 단념되

⁹⁹ 조병호, *와우! 예레미야 70년* (서울: 통독원, 2016), 86-141.

¹⁰⁰ Joachim Jeremias, *New Testament Theology*, 정충하 역, *신약신학* (일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2), 238.

지 않는 신뢰(Trust)이다.¹⁰¹

‘예수 안의 믿음’ (faith in Jesus)에 대한 깊은 연구는 믿음과 기적들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려 준다. 공관복음 전통 안의 믿음은 대부분 기적의 상황 안에서 발견된다. 믿음은 예수의 많은 기적들을 야기시켰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막 2: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마 8:10),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막 5:34, 10:52),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마 15:28). 정반대로, 믿음의 부족은 예수의 기적의 방해물로 여겨졌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마 13:58, cf. 막 6:5-6).”¹⁰²

4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5가지 종류로 말한다.¹⁰³

첫째, 불신앙(마17:17)이다. 예수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고 책망한다. ‘믿음이 없고’에 해당하는 아피스토스(ἄπιστος)는 믿음이 전혀없는 완전한 불신앙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완전 불신앙에 대해 패역하다고 한다. “결국 이들의 불신앙이 이적과 증거의 불충분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진리를 거부하는 고집센 생활 태도 때문”이다.¹⁰⁴

둘째, 작은 믿음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고 책망한 사건이 다섯 번 나오는데, 모두 제자들과 연관되어 있다(마6:30, 8:26, 14:31, 16:8, 17:20).

¹⁰¹ Ibid., 242.

¹⁰² Maureen W. Yeung, *Faith in Jesus and Paul* (Tubingen: Mohr Siebeck, 2002), 16.

¹⁰³ Avery Dulles는 신학자들이 믿음을 이해하는 7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명제 모델, 초월적 모델, 신학의 모델, 정서적 경험의 모델, 순종적 모델, 응용 모델, 개인적 모델. Vanhoozer, ed., *Dictionary for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226.

¹⁰⁴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 대전 마태복음 제11b-20장* (서울: 제자원, 2006), 551.

- 1) 예수님은 의·식·주를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말한다(마6:30).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염려를 버리지 못할 때,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하였다.¹⁰⁵
- 2)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말한다(마8:26).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올리고피스토이 / ὀλιγόπιστοι)’의 원형 “올리고피스토스(ὀλιγόπιστος)는 믿음이 약하여져서 굳건하게 신앙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¹⁰⁶ 즉, 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그의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다.
- 3)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 왔을 때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한다(마14:31).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양과 질에 있어 보잘것없는 믿음을 의미한다.”¹⁰⁷ 따라서 이 말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제자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믿음을 가진 데 대한 책망이다.
- 4)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가져 왔다’며 걱정하였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했다(마16:8).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 두고 걱정하는 자를 지칭하는 데 쓰였다.”¹⁰⁸
- 5) 제자들이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며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마 17:20)이라고 한다. “이곳의 명사 ‘작은 믿음’(ὀλιγόπιστία / 올리고피스티아)은 신약 성경에 오직 여기만 나온다(동족 형용사로는 마 6:30, 8:26, 14:31, 16:8이 있음). 이 단어는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참조, 약1:6-7).”¹⁰⁹

¹⁰⁵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 대전 마태복음 제1-11a장* (서울: 제자원, 2006), 479.

¹⁰⁶ Ibid., 601.

¹⁰⁷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 대전 마태복음 제11b-20장*, 363.

¹⁰⁸ Ibid., 462.

¹⁰⁹ Donald A. Hagner, *Word Biblical Commentary Vol.33B, Matthew 14-28, 마태복음(하)* (서울: 솔로몬, 2000), 809.

셋째,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다(마17:19-20, 눅17:5-6). 제자들이 예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하고 자신들이 무능력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마17:19). 이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 (마17:20)이라고 한다. ‘작은 믿음’은 “빈약한 자질, 믿음의 빈곤”을 의미한다.¹¹⁰ 그러면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한다(마17:20).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이다(마13:31-32). 이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¹¹¹ “‘산을 옮긴다’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용된 속담적인 표현으로, 무언가 대단히 어려운 일을 성취해 내는 것을 뜻한다.”¹¹²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한다(마17:20). 이 말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까지 다 해결되고, 다 뿌리채 뽑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포괄적인 것이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지 않았다.”¹¹³ “예수님은 무한한 자원이 신앙인에게는 열려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¹¹⁴

Fred B. Craddock은 우리가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 (나무의 뿌리가 뽑히는 것)이나 ‘불합리’ (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것)와 같은 단어는 사라지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게 해 준다. 믿음은 하나님을

¹¹⁰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2), 448.

¹¹¹ Hagner,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3B, *Matthew 14-28*, *마태복음(하)* 809.

¹¹²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449.

¹¹³ Ibid.

¹¹⁴ Ibid.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 제자들의 삶에 힘을 주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한다.¹¹⁵

넷째, 큰 믿음이다. 어느 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하인을 고쳐 달라고 간청하였다(마8:5-13).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고 대답하자, 이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고 고백한(마8:8)다. 예수님이 듣고 놀랍게 여기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고 한다(마8:10). “ ‘이만한’ 으로 번역된 ‘토사우텐’ 의 원형 ‘토수토스(τ ο σ ο ũ τ ο s)’ 는 ‘매우 많이’ 란 뜻이 있는 ‘토소스(τ ό σ ο s)’ 와 ‘이것’ 이란 뜻이 있는 지시 대명사 ‘후토스(ο ũ τ ο s)’ 의 합성어로서 매우 강조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kjv는 ‘그렇게 위대한(so great)’ 이라는 의미로 번역했다.”¹¹⁶ 이처럼 백부장은 당시 유대인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던 예수님의 메시야 됨을 믿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 오심을 감당치 못한다는 겸손한 신앙과 더불어 말씀만으로도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다. 이러한 백부장의 훌륭한 믿음은 예수님께 극찬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믿음대로 하인의 병이 낫는 결과를 낳았다.

다섯째, 거대한 믿음이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에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고 한다. “ ‘크도다’ 로 번역된 ‘메갈레(μ ε γ α λ η)’ 의 원형 ‘메가스(μ έ γ α s)’ 는 영어에서 ‘큰’ , 혹은 ‘백만 배’ 를 나타내는 접두사 ‘메가(mega)’ 의 어원으로 양에 있어서 많다는 뜻만 아니라 질에 있

¹¹⁵ Fred B. Craddock, *Luke*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90), 200.

¹¹⁶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 대전 마태복음 제1-11a장*, 563.

어서도 높다는 의미를 지닌다.”¹¹⁷ 메가톤(Mt)은 핵폭탄의 폭발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1 메가톤은 TNT 100만 톤의 폭발력이다.¹¹⁸ “네 믿음이 크다”는 것은 원자 폭탄급의 엄청난 믿음이란 뜻이다. 즉,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거대한 믿음을 칭찬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한다(마 15:28).

사도시대

야고보는 믿는 사람에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였다(약2:14-26). 야고보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 (카트헤아우텐)로 죽은 것이다(네크라)”, 야고보는 행동하는 믿음이야말로 생명있는 믿음이고, 본질과 일치된 믿음이라고 한다.¹¹⁹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자체’라는 말에 유의해야 한다. 야고보의 결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소용도 없고, 어떤 작용도 못하는 무력한 믿음이라는 것이다(롬7:8, 히6:1, 9:14 참조).¹²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 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며, 또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히11:1)”이라고 한다.¹²¹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¹¹⁷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 대전 마태복음 제11b-20장*, 416.

¹¹⁸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3247200> (2015년 2월 5일 접속).

¹¹⁹ 김명수, *야고보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57-158.

¹²⁰ 이승호, *야고보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148.

¹²¹ 현대어 성경 편찬위원회, *현대어 성경* (서울: 성서원, 2013).

증거” 라고 하는데, A.T. Robertson은 여기에서 ‘실상’ 과 ‘증거’ 는 둘 다 “증명”, 또는 “확신” 을 의미한다고 한다.¹²²

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한다(히11:6).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만 바라보자(히12:2)” 한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는 칭찬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패역하다고 책망하였다. 통성경적 믿음이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혀 불가능하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만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과정이다. 성전 건축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성경적 믿음으로 세워 나가야 한다. 그럴 때, 성전건축에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교회 건축이 평안하고, 교회 건축이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고, 교회 건축이 기적의 현상이 될수 있다.

¹²² A.T. Robertson,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Vol.VI. *the General Epistles and the Revelation of John*. 번역위원회 역, *신약원어대해설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서울: 요단출판사, 1985), 587.

제 IV 장

프로젝트 실행과정: 덕장교회의 건축

덕장 교회는 성경적 믿음으로 건축하였다. 성전건축에 대한 믿음이란 아래의 세 가지를 포함하는 믿음이다.

첫째, 성전 건축과 관련된 다윗의 믿음으로 ‘제사장 나라에 대한 충성’ 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해야 된다’ 는 것이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교회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다윗의 성전 건축 시도였다(유형교회 건축시도).

둘째, 성전건축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에 대한 충성이다. ‘너희(또는 너희 몸)가 하나님의 성전’ 이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개인의 마음 성전과 교회 공동체)에게 임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으로 보고, 그 무형교회를 건축하고, 확장하기 위해 1,2,3차 전도여행을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셋째, 성전건축에 대한 ‘통성경적 믿음’ 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다. 이 믿음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때 통성경적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어렵다. 성전 건축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성경에 나타난 성전의 변천사를 확대하면 다윗과 바울로 압축된다. 다윗은

유형교회를 확장시킨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무형교회를 확장한 사람이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모두 필요하다. 성전 건축이란 유형교회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무형교회도 건축해야 한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중요한 기둥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성전 건축의 Key Concept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통성경적 믿음, 이 세가지를 믿음으로 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전 건축이란 이 컨셉(concept)을 가진 사람이, 이 컨셉을 공유하고, 이 컨셉을 확장하기 위해 건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성전건축에 대한 성경적 믿음’으로 덕장교회가 유·무형교회를 어떻게 동시에 건축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무형교회 건축

본 연구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두 구절을 성전 건축을 위한 교회 비전으로 선정하였다.

...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창13:14-15).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대하7:15-16).

위의 두 구절은 선교와 기도에 대한 것이다. 연구자는 위의 성경 구절을 대형 현수막으로 만들어 교회 강대상 옆에 3년 간 부착하였다. 성전 건축 후에도 위의 성경 두 구절을 교회당에 부착하고, 교회 신축건물 정면 유리(가로 3.5M×세로 2.5M)에는 세계 지도를 삽입하고, 그 밑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는 성구를 삽입해 설치했다. 이 비전을 모든 성도가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덕장교회는 신축 교회당(敎會堂)이 ‘하나님이 주인이다’ 는 다윗의 고백이 나타나고, 솔로몬 성전의 두 가지 핵심 기능인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 ‘ 만민이 죄사함 받는 장소’ (대하6:18-42)가 되기를 바랐다. 또 제사(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고,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했다.

성전건축에 대한 다윗의 믿음으로 교회 세우기

교회의 역사 바로 세우기

연구자가 덕장교회에 부임하던 당시에는 교회의 창립자 문제로 혼란스러웠다. 교회 정문앞에 ‘교회설립 기념비’가 있었는데, 앞뒤에 설립자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문제로 교회가 42년 동안 혼란스러웠고, 또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민감한 문제였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교회의 모든 자료를 찾았으나, 교회에 보관된 자료는 교회의 전경 사진 한장뿐이었므로, 전 교인에게 광고해 자료를 수집했다. 다행히 초창기의 귀중한 자료가 발견되어서 교회 설립자를 ‘전주부 목사’로 바로 잡고, ‘교회설립 기념비’를 폐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임을 강조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모두는 일꾼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모일 이유도, 모일 필요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매주 주일 낮 예배시에는 찬송가 네 곡 중에 처음 두 곡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에 관한 곡으로만 불렀다. 또, 주일 낮 예배 시, 대표 기도가 끝나면 전 성도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송가 38장), 이 찬송을 부름으로 ‘예수님만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성전건축에 대한 바울의 믿음으로 세우기

선교(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전도에 방해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축소 또는 폐지하여 교회의 모든 에너지가 전도에 집중되도록 하였다.

선교 (타 문화권에 대한 선교)

건축 중에도 국내외 선교비를 축소하거나 중단하지 않았고, 구역예배 헌금은 모두 선교비로 사용하였다. 또, 선교단체를 초청해 선교훈련을 실시 하였고(비전스쿨 3개월), 교회학교 단기선교도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파송 하였다(중고등부, 청년부).

전도 (동일 문화권에 대한 선교)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 을 건축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온갖 악천후의 날씨에도 전도만은 쉬지 않았다(전천후 전도, 全天候傳道).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전도는 쉬지 않았다. 전도하느라 몸살이 나기도 하고, 발이 부르트기도 하고, 더울 때는 더위 먹고, 추울 때는 감기 몸살이 걸렸지만, 전도만은 쉬지 않았다.

건축 전후 3년 동안 매일 전도를 하였으며, 주일에도 전도하였다(주일 낮 예배 참석자는 예배 후 전도하러 나갔으며, 주일 오후 찬양예배는 예배대신 전 교인이 전도하러 나가기도 했음).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도 매일 실시하였다(평일, 오전 10시).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전도를 위하여 기도한 후, 전도지를 접거나, 전도를 위한 물품을 준비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공부방 운영과 총동원 전도주일을 실시하였다(연 2회).

전도 방법을 다양하게 함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기간 안에 이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현관 비밀번호를 모르면 출입 할 수가 없다. 현관문을 통과 하여도 입주민이 자기 집 문을 잘 열어 주지 않기 때문에 입주 기간을 최대한 활용 하였다. 그리고 현대인은 전도를 부담스러워 하므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접촉하려고 하였다.

아파트 입주전도는 아래와 같이 하였다.

- 입주자가 이사 오는 날 이삿짐을 옮겨주고, 집 청소를 함께 하며 전도
- 지역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다르므로, 이사 온 사람들은 이사 쓰레기를 당장 버리기가 힘들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전도용으로 배부
- 커피 배부: 이사하는 사람들에게 커피 배부
- 생수 배부 1: 이사하면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식수임(2ℓ 물병 전달)
- 생수 배부 2: 대부분의 사람이 이사 후에는 현관문을 잘 안 열어 주기 때문에 10ℓ 물통 100개를 사서 매일 의왕 시청의 지하 암반수를 담아 이삿날 집집마다 전달. 이사하면 식수가 필요하기에 입주민이 좋아하였고, 또 며칠 뒤, 빈 물통을 찾으러 가면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 주므로, 그 때를 전도의 기회로 삼음
- 도로(인도)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커피와 생수, 전도지를 배부
- 부침개를 부쳐 전달
- 텃밭에서 키운 야채 전달: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키운 야채를 대량으로 가져와 전달하기도 함
- 지역사회 주요 시설의 전화 번호를 삽입한 전도지 배부: 타 지역에서 이사 오면 모든 것이 생소하기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지역 사회 주요 시설의 전화번호를 삽

입하여 배부¹

- 기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 전달함.

새가족 관리와 양육

새 가족 관리와 양육은 아래와 같이 하였다.

- 새 가족을 맞이하기 위하여 교인에게 알파코스 교육(1회에 3개월, 연 2회)
- 등록된 새 가족 알파코스 교육(연 2회: 전·후반 각 3개월)
- 바나바 사역(새가족 등록시 6개월 간 새가족 부원, 항존직, 구역장, 남녀선교회 임원 등을 조편성하여 새 가족과 연결시키고, 친교, 관리)
- 전도지역 아파트 단지에 구역장 세우기(등록교인이 없는 지역도)
- 식당에서 새가족 보면 먼저 식사를 권하고, 식사순서 양보하기
- 새 가족에게 인사 잘 하기: 새가족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는지, 아닌지 그것으로 교회에 '사랑이 있다, 없다' 로 평가함
- 새가족과 교제하기: 주일 점심 시간에 교회 식당에서 친한 성도와 식사 안 하고, 새가족을 찾아가 식사, 인사, 커피 대접하기 등
- 전 교인 친교잔치(연 2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① 돼지 두 마리, ② 또는 소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생산지에 주문), 전교인(새가족, 교회학교 학생 포함)이 숯불구이 잔치를 열음(예산은 남녀선교회와 개인 찬조 받음)
- 전 교인 등산: 주일 찬양예배 후, 교회에서 가까운 산으로 등산

¹ 부록 참조

성전건축에 대한 통성경적 믿음으로 세우기

설교

설교가 교인의 영적 성장 및 새가족 정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설교에 최선을 다하였다. 『주일낮 예배』 설교는 주로 종교개혁자들의 5대 모토(motto)인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설교하였다. 『수요기도회』 설교는 창세기(족장들의 믿음 위주로 강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나안 정착을 통해 나타난 이스라엘의 믿음과 불신, 하나님의 반응),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강해 설교하였다(42명의 왕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평가). 『금요기도회』 설교는 4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을 순서대로 강해 설교하였다(믿음과 기적). 『금식 새벽기도회』는(매년 3회 / 1회에 1주일씩 금식기도), 성경 중에서 성전건축과 관련된 본문으로 설교하였다(학개, 스가랴, 삼하 5-8장, 왕상6-8장, 대상13-17장, 대상28장 - 대하 8장 등).

성경공부

‘통성경적 믿음’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로 믿음과 관련된 성경공부를 하였다. 즉, 히브리서(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와 믿음), 로마서(이신득의, 以信得義), 야고보서(실천적 믿음 강조)를 공부하였다. 그 외에도 큐티 세미나 및 훈련, 성경통독(연 2회 / 신약만, 월-금요일까지: AM 10:30 - PM 4:00), 성경 200독 하기(전교인 합산), 성경공부 지도자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주보에는 매주 주간 가정예배를 수록하였다.

기도회

- 전교인 금식 새벽기도회: 4개월 간격으로 실시(연 3회 실시), 일주일 간 하루

세 끼 식사 중에 편한 시간을 선택해 하루 한 끼씩 금식기도(3년 동안 9회) 실시²

- 금요기도회: 매주 실시, 매월 마지막 주는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로 모임
- 교회 건축 후에는 신축건물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해 누구든지 와서 주야로 기도하도록, 교회학교 학생 및 지역 주민에게 비밀번호 공개.
- 건축을 위한 평일 기도회: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누구나 참석 가능
- 교회 건축을 위한 부서별 기도회(교회학교, 남녀선교회, 성가대, 권사회 등 - 각 부서별로 편한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서 실시)
- 건축현장 방문 기도회 (4회: 주일 찬양예배 후 또는 수요일기도회 후)
- 각종 모임 전 기도회: 교회의 모든 부서가 모임을 가질 때는 먼저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한 후 모임시작
- 공동 기도제목 배부: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 전 교인에게 배부(성경책 사이즈, 앞면은 투시도 사진, 뒷면은 기도제목), 전 교인이 한 목소리로 기도(기타 기도 제목은 상황에 따라 주보 통해 광고).³

유형교회 건축

건축 전 환경: 교회 주변 환경

덕장교회는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987-3번지에 위치한 교회로, 6.25전쟁이 한참 진행되던 1951년 8월에 전주부 목사가 자택에서 시작했다. 그 후 1957년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러 떠나서 폐지되었다가, 다시 전주부 목사가 돌아와 1962년에 현

² 부록 참조.

³ 부록 참조.

위치에 개척하게 되었다.

필자가 2004년 12월에 덕장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더니, 교회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 있었고, 존치된지(2003.10.9) 약 1년 정도 지난 상태였다. 정부에서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어 개발을 제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하게 되었다. 그 동안 그린벨트로 묶어 놓는 바람에 교회 주변에 집이 몇 채 없었고, 개발을 제한하는 바람에 말이 의왕시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한적한 농촌이었다.

교회 존치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2003년 6월 13일 건설교통부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의왕 청계지역(의왕시 청계동) 10만 3천 평에 2,200 가구를 짓게 되었다.⁴ 이때 덕장교회는 택지개발 지역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교회 대지 1,560㎡(472평)을 팔고 보상 받는다 해도 종교부지 991㎡(300평)을 매입하고, 교회당을 건축하기에는 돈이 너무 부족했다.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한다 해도 신축하기에는 불가능했다. 결국,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덕장교회는 종교탄압으로 여기고, 안양노회 소속 교회와 연대해 3,670명이 ‘존치 요구 서명’을 하고, 13개 국가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⁵ 그 결과 교회 부지가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게 되었다(2003.10.9 / 대지 1,560㎡, 472평).

⁴ 장의영, “국민임대단지 3곳 개발계획 승인,” (한국경제, 2003년 6월 13일).

⁵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경기본부, 의왕시청, 의왕시의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감사원, 청와대민원실,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건축 전 환경: 교회환경

필자가 교회에 부임했더니, 그 동안 교회에 내적으로는 많은 아픔이 있었다. 교인은 장년 130명 정도 출석했고, 교회 구성원은 대다수가 노년이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다. 또 교회 주변이 개발될 것을 모르고, 어려운 환경에서 2억을 들여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2001.7.1) 한지 3년밖에 안 되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주변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2,200 가구를 건설한다면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었고, 2년 6개월 뒤에는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다.

당시에 교회당이 연건평 238㎡(72평)이었는데, 그 공간으로는 2년 6개월 뒤 아파트 입주민을 전도해도 수용하기 어려웠다. 또, 건축을 한다 해도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고, 담임목사는 부임한지 3주 밖에 안되는 상황이었다. 그 동안 교회에서 모아 놓은 돈은 780만원 밖에 없었고, 교인들 중에 재력가도 없고, 대부분 가난했다. 현실적으로 교회 건축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교회 건축 결정 과정

교회 건축문제를 놓고 전 성도가 6개월 간 기도

담임목사로 부임한 지 3주 밖에 안 되었지만, 교회 미래를 위해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임한 지 3주 만에 당회를 소집하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첫째, 신축을 하든지, 둘째, 확장 공사를 하든지, 셋째, 현 상태 그대로 있든지, 6개월 시간을 줄 테니 6개월 동안 함께 기도한 후,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당회원들도 찬성하였다. 그래서 전 교인이 6개월 동안 기도하도록 했고, 교회당 건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했다. 그리고 6개월 뒤, 공동의회서 결정하는 대로 하기

로 했다.

만장일치로 교회 건축을 결정

6개월 기도한 결과 당회에서 건축하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소수의 다른 의견을 가진 당회원도 있었지만, 다른 당회원들이 설득해서 만장일치로 건축을 결정하게 되었다(2005.5.29). 제직회에서도 건축을 만장일치로 결의했고(2005.6. 19), 공동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2005.7.3). 교회당 건축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였다. 건축 규모는 법적인 범위 안에서 최대한 크게 건축하기로 했다.

교회 탐방

교회당 건축을 결정한 후 교회 건축을 위해 최근에 신축한 교회를 10여 곳을 탐방하였다. 그 결과 최근에 신축한 교회를 많이 탐방하는 것도 좋지만, 잘 지어진 교회를 4~5군데 탐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건축헌금 작성

교회건축은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건축해야 한다. 성도를 억압하거나 강요해서 건축해서는 안된다. 강요한다고 건축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감동이 될 때 가능하게 된다. 성경에 보면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로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었다. 성막을 건축할 때도 자원하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건축했고(출35:5, 20-35), 예루살렘 성전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로 건축했고(대상29:6-9), 스킴바벨 성전도 마음에 감동되어,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린 예물로 건축했다(스1:5, 2:68-69). 덕장교회는 이 원칙에 따

라 건축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고, 최대한 자원해서 하도록 했다. 그렇게 했더니 많은 건축 헌금이 모아졌고, 건축헌금이 부담되어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건축 기간에 출석 성도의 1/3 이상이 늘어나고 부흥이 되었다.

건축헌금 작정: 교회학교

교회학교 학생들도 교회 건축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교회학교 학생들도 교회 건축에 동참하도록 ‘건축에 대한 안내장’ 과 함께 ‘돼지 저금통’ 을 배부했다. 돼지 저금통에는 ‘건축헌금’ 이라는 글씨를 인쇄해 배부했다. 그 결과 학생들이 교회 건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돼지 저금통을 여러 번 바꿔 가지고 가서 용돈과 교통비를 아껴서 헌금을 했다.

건축헌금 작정: 장년부

교회를 건축하면 건축 헌금이 부담되어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많은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건축헌금에 대해 최대한 부담을 적게 주면서도 최대한 헌신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건축헌금을 작정할 때, 건축 헌금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강조했다.

첫째는 헌금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물질로 헌신하라고 했다.

둘째는 기도로 하는 것이다. 건축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이니, 돈이 없어 건축헌금에 부담을 갖는 분은 부담 갖지 말고 기도하라. 건축을 위해 힘껏 기도하는 것이 또 다른 방법의 건축 헌금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기도가 건축헌금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셋째는 교회를 건축하면 헌금이 부담되어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많은데, 떠나지 않고 자리만 지켜도 건축헌금임을 강조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리만 지켜도, 출석만 해도 건축 헌금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라고 강조했다.

넷째, 우리의 건축 비용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교회당 건축 공사비가 50억인데, 성도들이 헌금을 한다 해도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산은 ‘오직 성경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건축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요, 축제의 현장이요, 잔치의 현장이 되게 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건축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성도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100% 남아 있었다. 오히려 건축하는 동안 성도가 더 늘고 부흥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회 때 ‘건축헌금을 누가 얼마 작성했는지 소문이 나가면 성도들이 위화감을 가지니 ‘건축헌금 작성’에 대해 일체 비밀로 하자고 제안하고, 담임목사와 건축위원장과 건축회계 외에는 당회원도 모르는 것으로 결의했다. 그리고 당회원과 교인들에게, ‘만약 누가 건축 헌금 얼마나 작성했는지 소문이 나가면 3명 중 한 사람이 발설한 것이다’고 공개적으로 교인들에게 선포했고, 3명 모두 끝까지 비밀을 지켰다.

그 결과,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건축 헌금을 작성했다. 보통 부흥사를 동원해 건축 헌금을 강요하면 1년 예산의 3배가 나오는데, 덕장교회는 부흥사를 동원하지도 않았지만, 건축헌금 작성 결과 1년 예산의 3배가 나왔다. 그리고 건축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교인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헌금했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 기도했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 자리를 지켰다. 이것은 오직 하나

님의 은혜였다.

비품헌금 작성

공사가 끝나갈 무렵 ‘비품헌금 작성’ 을 실시했다.⁶ 사전에 구입할 물건을 시장 조사한 후, 비품 목록을 작성해 배부하고, 그 비품 목록을 보고 개인이 힘 단는 데까지 자발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설계 및 시공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단 하나뿐이었다. 스톱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있다 해도 그것은 솔로몬 성전의 연장 선상에 불과하다. 건물(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던 성전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이났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또는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는 교회 시대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당(敎會堂)을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교회당 건축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전건축은 최대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체험하는 장소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교회당은 최대한 그것을 돕는 장소로 설계하고, 시공해야 된다.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에 대한 성경적 믿음’ 인, 이 세 가지가 담겨야 한다. 그러므로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회철학을 설계에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교회당 건축은 설계사나 시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건축은

⁶ 부록 참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설계사나, 시공사는 담임목사를 도와주는 헬퍼가 되어야 한다. 교회당 건축은 가장 중요한 핵심중 하나가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고, 그것을 설계에 담아야 한다.⁷

건축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설계에서 결정된다. 시공사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는 것뿐이다. 설계가 부실하면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고, 공사기간도 그만큼 지연된다. 이로 인한 부대비용(임시예배장소 사용의 연장 등)도 만만치 않고, 귀중한 현금을 낭비게 된다. 그러므로 담임목사는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 방향부터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설계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는 설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목회자는 설계 전에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 분명한 계획부터 세우고, 그 다음 설계사를 선정해야 한다. 설계 부실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많은 교회가 설계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공사 중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게 된다. 건축 중에 일어나는 교회 불화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설계 부실이다. 설계 부실로 이미 공사한 부분을 다시 부수고, 변경함으로써 공기가 지연되고, 공사비도 10~20%가 추가로 발생한다. 50억원의 공사이면 추가 공사비가 5억에서 10억이 추가로 더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회 안에 갈등이 발생한다. 교회당 건축에 대해 성도들의 마음이 분열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교인이 교회를 떠나거나 목회자가 사임하기도 하며, 심지어 교회가 분열되기도 한다. 또 설계 부실은 다시 건축할 때까지 30-40년 동안 성도들이 시설 사용에 불편을 느끼게 만든다.

⁷ 목회자가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은 CM(건설사업 관리 / Construction Management)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CM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 전 분야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줌(설계, 전기, 설비, 자금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사후 관리 등).

건축 중 일어나는 교회 분쟁의 중요 원인 중 하나가 설계 부실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설계 부실이 교회의 귀한 현금을 낭비하고, 교회 분쟁을 야기하고, 교회 부흥을 저해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계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차 초안 설계가 충실하게 되면, 건축 문제로 담임목사와 교인 사이에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담임목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건축할 수 있고, 담임목사가 건축 현장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되고, 목회에 집중할 수 있다. 설계 부실로 건축에 집중하고, 목회를 등한히 하면 교회에 온갖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보통 연건평 1,500평을 건축하면 평균 공사기간이 18개월인데, 덕장교회는 10개월 만에 공사를 마쳤다. 공사비도 50억 중에서 추가 비용(시설추가)이 3,000만원만 발생했다. 설계를 충실하게 한 결과였다.

덕장교회는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 지침을 먼저 만든 후, 기독교 신문에 『설계사 공개모집 광고』를 하고, 응모자를 모아 설계 설명회를 하고, 이 지침대로 설계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1등에게는 설계 권한을 주고, 2등은 수고비로 300만원, 3등은 200만원, 4등은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현장 설명회 후, 1차 설계 접수를 받았는데 대부분 ‘설계 지침’ 대로 안 되었다. 그래서, 그 중에 설계 지침을 반영하려고 애쓴 흔적이 있는 4개 회사를 다시 불러 재설계를 요청했고, 그 중에 설계지침에 가장 충실한 회사를 선정했다.

그 후, 기독교보를 통해 『시공사 모집 광고』를 내고 시공사를 선정하였다. 이때, 교회 건축 중 부도나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서 건설 경력, 재정 상태, 시공한 교회를 찾아가 시공사에 대한 평판을 직접 청취했다.

설계가 끝난 후 1차 도면을 받고, 시공사를 불렀다. 큰 시공사는 자체에 각 분야 1급 전문 기사가 있기에, 각 분야 1급 전문가에게 설계 자문을 구했다. 그랬더니 설계에서 이상한 점 108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설계사를 불러 조목조목

질문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다시 각 분야 1급 기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설계 도면을 최종 완성하게 되었다.

결과

성전 건축을 앞두고 성지순례(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를 하게 되었다. 성지 순례를 위해 요르단에서 이동하던 중, 휴식하기 위해 광야에 있는 휴게소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그 때 차에서 내려 바람을 쐬며 사방을 둘러 보니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물 한 방울 없었다. 그곳에 짐승의 뼈와 해골이 보였다. 연구자는 그 때 큰 충격과 함께 은혜를 받았다. ‘바로 이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땅을 쳐다보면 죽고, 하늘을 쳐다보면 온갖 기적이 일어났구나. 우리 교회 건축도 하늘을 쳐다보면 살고, 땅을 쳐다보면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힘을 얻었다.

건축 과정 중에 일어난 기적의 사례

교회 존치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청계지역 개발로 교회가 주택공사에 수용되고, 없어질 위기를 맞았다. 교회 대지를 팔고 보상 받아도 종교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기 어려웠다. 성도들이 건축 현금을 한다 해도 어려웠다. 결국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일로 전 성도가 교회 존치(存置)를 위해 기도하고, 안양노회 각 교회와 협력해 ‘존치 요구 서명 운동’을 했다. 그리고 ‘교회 존치 요구’ 공문과 서명서류를 청와대 및 국회 등 13곳에 보냈다. 그 결과, 주택공사 역사상 처음으로 택지개발 지역에 교회가 존치되게 되었다(교회존치 대한민국 제1호, 2003.10.9). 이 일로 덕장교회 존치가 선

례가 되어 비로소 택지개발 구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존치하게 되었다. 존치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건축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덕장교회를 건축할 당시의 교회상황은 현실적으로 성전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장년 출석 교인이 130명이었고, 또 교회 주변이 개발될지 몰랐고, 교회 인테리어를 한 지 3년 밖에 되지 않았다. 교회 재정이라고는 780만원 밖에 없었고(2004년 말), 또 교인들 가운데 재력가도 없었다. 성도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교회 주변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건축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신축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全) 성도가 6개월을 기도하였다. 6개월 기도한 결과 당회에서 건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2005.5.29), 제직회에서도 만장일치(2005.6.19), 공동의회서(2005.7.3)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만장일치가 어려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존치 해제가 결정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건축을 결정하고, 건축허가 내려고 시청에 갔더니, 법적으로 존치된 건물은 신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주택공사나 시청에서 모두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교회가 존치된 것도 전례가 없는데, 존치된 건물을 해제하고 다시 건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상 전례가 없다는 것이었다. 존치된 건물은 법적으로 해제하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건축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덕장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기도하면 쉽게 해결되고, 기도 안하면 복잡하게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리고 건축을 해야 될 이유를 공문으로 작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해당 부처에 ‘존치 해제 요청’을 했고, 그 결과 존치 해제 허락을 받아 건축하게 되었다(교회존치 해제 대한민국 1호). 결국 교회 존치도 대한민국 제 1호가 되었고, 교회 존치 해제도 대한민국 제 1호가 되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지 체험하였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건축하는 동안 교인 수가 증가한 것도 기적이다.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헌금이 부담되어 교인들이 10-20% 정도가 교회를 떠나는데, 덕장교회는 건축하는 동안 단 한 명의 교인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건축 기간 동안 성도가 $\frac{1}{3}$ 이상 더 늘었다.

존치 부담금도 다른 방법으로 돌려 받다.

교회가 기존의 현 자리에 그대로 존치된다는 이유로 ‘존치부담금’ 2억 8천 만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또, 개발과정에서 교회 대지를 정리하면서, 교회 땅이 주택공사로 일부 편입되고, 주택공사 땅은 교회로 일부 들어오게 되는 등, 중첩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택공사가 교회 땅은 싸게 매입하고,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땅은 비싸게 공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8천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결국 교회가 존치됨으로 인해서 3억 6천 만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렸더니, 터 파기 공사 비용이 4억 7천 만 원인데, 1억 1천 만원에 계약하도록 길을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으로 존치 부담금을 되돌려 받았다.

임시 예배 장소가 마련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건축하기 위해 임시 예배 장소를 찾았으나, 교회 주변에 건물을 빌릴 데가 없었다. 주변의 학교를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교회 건축이 벽

에 부딪혔다. 이 문제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 옆의 주택공사 땅 300평을 빌려 주셨다. 원래 이 땅은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동사무소 측에서 부지가 좁다며 신축을 미루는 바람에 공터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주택공사와 시청의 허락을 받아 동사무소 터(약 300평)를 빌려 임시로 비닐 하우스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50억 공사를 한 것이 기적이었다.

교회당 건축을 할 당시는 교회 주변이 한적한 농촌이었다. 말이 ‘의왕시’였지, 그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서 전혀 개발이 안되었다. 교회 형편도 어려웠다. 건축 당시 장년 교인이 130여명 출석했고, 그것도 노인이 많았다. 성도들 중에 부자도 없고, 대부분 가난했다. 건축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던 돈은 780만원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재산으로 여겼다. 우리의 재산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건축을 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건축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 잠 못 자는 날도 많았다. 중도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잠을 설치며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집 짓지 네 집 짓냐!” 고 말씀하셨다. 그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지으려고 했구나, 이 건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 집 짓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일꾼이고, 심부름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 그때서야 마음이 편해졌다. 주인이 다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심부름꾼이라고. 그 후 장로님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해 대출을 받았다. 하나님은 싼 금리로(은행 CD금리 + 1%) 대출 받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이 금리는 당시 대기업도 받기 힘든 금리였다. 그 후 건축을 무사히 마쳤을 뿐만 아니라, 교회 뒤에 주

차장 220평도 추가로 매입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시공 기간의 단축도 기적이었다.

보통 1,500평 정도 건축하려면 공사기간이 18개월 걸린다. 그런데 덕장교회는 10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했다. 임시 예배장소를 돌려줘야 하는 시기도 있고, 아파트 입주 기간도 있고 해서 겨울에도 공사를 하게 되었다. 날이 추우면 시멘트 강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부실공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도하며 계속 공사를 했다. 시멘트를 타설할 때가 되면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와 따뜻했고, 시멘트가 굳으면 다시 날씨가 추워졌다. 그렇게 해서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5층을 공사하게 되었다. 지역주민들이 “이번 겨울은 덕장교회를 위한 겨울이다. 하나님이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따뜻하게 해 주셨다, 이런 겨울은 처음이다” 하며, 교회 안 다니는 지역주민도 모두 감탄할 정도였다. 건축 후 여러 군데 구멍을 뚫어 시멘트를 짚라 시멘트 강도를 검사해 보니까 법적인 기준보다 60이 더 나왔다. 시멘트 강도에 문제가 없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시공사가 건축현금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시공사가 전체 건축비용의 ¼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현금으로 바꿨다. 성경적 믿음으로 건축할 때 시공사도 적극적으로 현금하고, 헌신하였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건축 전·후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

이처럼 덕장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성전건축에 대한 성경적 믿

음' 으로 유, 무형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 그 믿음이 교회당 건축과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표3> 건축 전·후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믿음의 성장)

직 분	이 름	성경적 믿음으로 건축하자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성경적 믿음으로 건축한 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장 로	강신준	재정보다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대하거나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어야 할텐데 하고 그 문제가 더 걱정이 되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건축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 삶속에 간직하게 되었다
장 로	백창학	막막했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으니 그저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은 별도로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슨 일이든 선한 믿음으로 간구하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

장 로	이종초	재정이 없어도 건축이 꼭 필요하다면 믿음으로 건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없는 재정에서 시작한 건축인데도 많은 재정의 채움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한편 신기하게 느껴졌다.	꼭 필요한 데도 능력을 이유로 계획도 세워보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은 옳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신념을 배우게 되었다.
안수집사	공인호	맨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었다.	과연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믿음에 대하여 많은 변화를 받았고, 세상 모든 일에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이 되었다
안수집사	김중석	믿음으로 건축하고자 했을 때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이 교차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안수집사	서동희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느꼈고, 기적을

			다.	체험했다.
안수집사	장경원	건축을 찬성은 했지만 직업이 건축가였던 사람으로서 건축 규모에 비해 준비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었다	하지만 건축이 시작되고 전 교인이 기도하며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셔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으로 이루어 주셨다.	인생길에서 내가 진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권사	김미자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기에 건축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다.	건축하기를 ‘참 잘했다’ 생각했고, 내 평생에 건축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뿌듯했다.	가정에 평화가 왔으며, 삶에 감사가 넘쳤다.
권사	박은순	당시에 나는 철야기도를 천 번 하기로 작정하고 기도 중이었다. 기도 중에 맞이한 일이라 믿음의 건축을 감사함으로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심을 체험하였다.	성전 건축을 계기로 먼저 시간과 물질의 십입조를 드리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체험

		받아 들였고, 내게 큰 축복으로 여겨지고 매우 기뻐다.		했다(남편구원, 자녀 입시합격, 갑상선 종양 치유, 신경정신과 스트레스 치유)
권사	이연희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믿고 열정과 확신으로 온 맘 다해 기도할 때 無에서 有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다.	아름다운 성전이 있음에 감사했다. 믿음으로 태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였다.	정말 믿음이 이때 확실히 견고해졌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살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도 이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권사	이인순	다윗에게도 거절하신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천막교회(건축 중 임시 예배장소)에서 드리던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삶에도 오병이여의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생겼다.

<p>권 사</p>	<p>이정애</p>	<p>모든 일에 다 때가 있으므로 성전 건축의 최적기라 생각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온전하게 건축되리라 믿었다</p>	<p>이 아름다운 성전에 서 예배 드리며 헌신하는 일이 매우 감동적이었다</p>	<p>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며, 내 생애 모든 일들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형통 할 것 이라는 믿음이 생겨 감사하며 살고 있다.</p>
<p>권 사</p>	<p>전성결</p>	<p>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p>	<p>곳곳에 준비된 주님의 일꾼들이 많았던 것에 감사 드렸고, 이 믿음으로 건축된 성전이 지역 사회에 구원의 등불이 될 것을 간곡히 기도 드리고 있다.</p>	<p>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신념을 가지고 모든 삶에 임하게 되었다</p>
<p>권 사</p>	<p>정병선</p>	<p>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헌신을 결단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믿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p>교회 건축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가슴이 벅차 오르는 큰 감동을 받았고,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가 넘쳤다.</p>	<p>현재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크게 성장되었으며, 헌신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p>

				<p>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p>
권사	한순자	<p>그때 당시 건축헌금 재정으로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無에서 有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p>	<p>교회가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건축된 것처럼 앞으로 영적인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p>	<p>건축 할 때 헌금과 기도와 봉사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교회가 더 부흥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내 몫이라 생각하고 감사한다.</p>
서리집사	이명자	<p>조건이나 상황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인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전을 짓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없었다</p>	<p>성전 건축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p>	<p>머리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음을 회개하고,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p>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
--	--	--	--	--------------------

결과

덕장교회는 성전건축에 대한 성경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유·무형교회를 동시에 건축하게 되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앞의 ‘건축 전·후 성도들의 반응’ 처럼, 성도들이 성경적 믿음으로 세워졌고, 삶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둘째, 성전 건축이 부담되어 떠난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다.

셋째, 교회건축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넷째, 건축 중에 출석교인 ½이 늘어났다.

다섯째, 교회 건축으로 인한 갈등이 없었다.

여섯째,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50 억원의 성전 건축을 잘 마쳤고, 건축 중에 주차장 부지 220 평을 추가 확보하였다.

일곱째, 성전건축 중에 많은 기적을 체험하였다.

많은 교회가 성전 건축을 앞두고 덕장교회에 탐방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은 처음 본다” 며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제 V 장

결 론

목회를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교회당을 건축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평안하게 잘 건축하지만, 어떤 교회는 많은 갈등과 상처가 발생해 후유증이 심하다. 차라리 교회당을 건축 안하는 것만 못한 경우도 있다. 교회당 건축은 교회의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고, 기적의 현장이 되고, 교회 부흥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성경적 믿음’ 으로 건축해야만 한다. ‘성전건축에 대한 성경적 믿음’ 이란 아래의 세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는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다. 성전 건축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다윗이다.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믿음은 한 마디로 『제사장 나라에 대한 충성』이었다. 다윗은 500년 전 모세 때 시작한 제사장 나라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싶었고, 그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받고 싶어했다. 그것을 명시적(明示的)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시도였다. 진짜 통치권은 하나님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었다.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면 안되고, 진짜 통치권은 하나님만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성전건축 시도였다. 교회건축이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다’ 는 선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교회당 건축이다.

둘째, ‘성전건축에 대한 바울의 믿음’ 은 ‘하나님 나라 새 성전에 대한 충

성’이었다. ‘너희 몸(또는 너희 / 개인의 마음성전 또는 교회공동체)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을 건축(양육, 제자화)하고, 확장(선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교회당 건축이란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을 건축하고, 확장하겠다는 신앙고백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셋째, 성전건축에 대한 ‘통(通)성경적 믿음’이다. ‘통성경적 믿음’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이 통성경적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당을 건축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중에 어떤 문제는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통성경적 믿음이다. 그러므로 성전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서도 믿고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결국, 성전 건축의 Key Concept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통성경적 믿음’, 이 세가지를 믿음으로 담는 것이다. 교회당 건축이란 이 컨셉(concept)을 가진 사람이, 이 컨셉을 공유하고, 이 컨셉을 확장하기 위해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당 건축은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유·무형 교회를 동시에 건축하는 것이다. 교회당 건축을 통해 성경적 믿음이 표현 되어야 하며, 이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교회당 건축이어야 한다. 연구자는 이 믿음과 이 정신이 오늘날 교회당 건축에도 밑바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덕장교회는 건축의 시작 단계부터 진행과정, 결과까지 이 부분을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졌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덕장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 세가지 컨셉을 다 놓치지 않았다. 그결과

로 덕장교회라는 건물 성전도 지었지만, 건물 성전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교인들의 믿음도 건축되었고, 부흥 성장했다. 교회당 건축이란 단지 건물을 몇 평 건축했다는, 결과물만 결과물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목사도, 교인들도 성전건축의 컨셉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커졌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교회당 건축의 기회로 말미암아 총체적으로 보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믿음이 자랐다. 이런 부분이 교회당 건축 과정에서 건물로 구현되었으며, 덕장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구현되었던 것이다.

덕장교회 건축과정을 통해 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교회당 건축은 성경적 믿음으로 건축해야 한다. 그래야 교회당 건축 중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고, 교회당 건축이 교회의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고, 기적의 현장이 되고, 교회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덕장교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당을 건축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장년 출석 교인이 130명이었고, 그 중에 절반이상이 노년층이었다. 대부분의 성도가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교회 재정은 적은 액수(780만원) 밖에 없었다. 그러나 성전건축에 대한 성경적 믿음으로 막대한 50억 원의 공사(연건평 4,942㎡/1,495평)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727.27㎡ (220평)의 주차장까지 추가로 구입할 수 있었다. 덕장교회는 건축 기간에 건축현금이 부담되어 교회를 떠난 성도가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건축기간 중에 출석 성도가 ½이 늘어났다. 덕장교회는 건축기간이 축제였고, 잔치였고, 건축 과정이 기적의 현장이었다. 건축기간에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건축을 통해 성도들이 성경적 믿음으로 세워졌으며, 건축 공사기간에 교회가 오히려 부흥되었다. 수 많은 교회가 교회당 건축을 앞두고 덕장교회를 탐방한 후, 하나님의 기적에 놀라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당은 처음 본다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것은 성경적 믿음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교

회당 건축은 성경적 믿음으로 유·무형 교회를 동시에 건축해야 한다고 믿는다.

부록 I.

〈설문지〉

작성자 이름: _____ 직분: _____

우리 덕장교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건축했습니다. 건축당시 교회의 재정은 780만원 뿐이었고, 우리는 성경적 믿음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의 재산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아래 내용은 우리 덕장교회를 믿음으로 건축했다는 논문의 자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간략하게 2줄 이내로).

1) 성경적 믿음으로 건축하자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2) 성경적 믿음으로 건축한 후에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3) 그것이 내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교회건축 전·후 사진>

1. 건축전 사진



2. 건축후 사진



<건축을 위한 기도제목>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1.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건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 하나님께서 건축을 결정하고,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마무리 지어 주옵소서.
3.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시작한 것 아니라 기도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부족한 것 채우소서
4. 건축이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고, 복 받는 계기 되고
5. 건축이 기적의 기간, 기적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6. 건축이 성도들 마음에 무거운 짐이나 시련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동참하게 하소서.
7.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교역자와 건축위원회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8.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 하여 주소서 (교회와 가정, 직장 등).
9. 부족한 재정 채워 주셔서 빛 없이 입당하고
10. 임시에배 장소 해결해 주시고, 교회 진입로가 직선으로 열리고, 최적의 장소에 협의자택지 배정받고, 존치부담금 최소화 되게 하옵소서
11. 각종 장애물 제거해 주시고(민원, 안전사고 등)
12. 설계사와 시공사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 협조하며
13. 건축이 잘 진행되어 2007년 6월 전에 입당하게 하소서
14.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워 지며
15. 건축하는 동안 교회(가정, 직장등)가 평안하고 든든하며, 더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 매일 1번 이상 기도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덕장교회

〈교회건축헌금 작성서〉

■ 작 정 안 내 ■

1. 건축헌금 작성서는 11월 13일(주일)에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 주시는 능력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헌금 방법은 각자 형편에 따라 드립니다.
 - 1) 일시헌금 : 작성 금액을 일시에 내는 경우
 - 2) 월정헌금 : 작성 금액을 분할해 매월 내는 경우
 - 3) 수시헌금 : 작성 금액을 수시로 낼 경우
 - 4) 헌금 외에 현물(부동산, 귀금속 등)도 드릴 수 있습니다.
4. 모든 성도는 빠짐없이 참여 하셔서 교회건축을 통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5.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덕장교회 출신 성도들과 친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 헌금 작성서

제출일: 2005. 11. 13(주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덕장교회 건축위원회**

☎ 423-6005(代) 423-5672(FAX) E-mail: 423-6005@hanmail.net.

반으로 접은 후 이 부분을 펼칠하여 붙여주세요

교회 건축 헌금 작성서

1. 작성자 : 개 인(), 가 정() * 해당부분에 “○” 표

이름	(남,여)	직분	구	역
주소			전화	자택 휴대폰

2. 가족(작성자가 가족단위로 작성하는 경우만 기록)

번호	이름	직분	성별	관계	번호	이름	직분	성별	관계
1					5				
2					6				
3					7				
4					8				

3. 헌금 작성액 금액: _____ 원정 (₩ :))

* 가급적이면 2006년 12월까지 헌금(완납)해 주시면 좋습니다(기공전까지).

늦어지면 교회서 과도한 대출을 해야 되므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큰 압박(이자부담)을 받게 됩니다.

4. 헌금 방법

구분	금액	비고
일시 헌금	원	년 월까지
수시 헌금	원	년 월까지
월정 헌금	원	년 월까지
	월납 원	월납액 × () 개월
현물 (부동산, 귀금속 등)	물품명	추정금액

< 건축헌금 작성 안내문(교회학교) >

교회학교 건축헌금작성 안내문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 드리며 작은 마음을 같이 모으고자 이 글을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귀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 평생에 자주 오는 일이 아니고, 또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덕장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에는 상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말고, 우리 스스로 아끼고 아껴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합니다.

귀한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

1. 뜻 : 벽돌 한 장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
2. 정성 :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마음을 모음
3. 모금액 :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마음을 모음
4. 벽돌드림: 2006년 11월일(주일 예배시)

* 첨 부: 돼지 저금통

대한예수교장로회 덕장교회 교회학교장

<건축헌금 봉투(장년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에스라 1:5)

건축헌금

일시헌금 

월정헌금

수시헌금

* 해당부분에 √표

이름 : _____

구역 : _____

헌금 : _____ 원

_____ 201 년 월 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덕장교회**
TEL:031)423-6005 FAX:423-5672

<건축헌금(교회학교)>



<전도지>

▶ 덕장교회



책임적 가치 ▶ 사랑이 넘치는 교회

- 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 ②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 ③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31)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찾아오시는 길>



☎ 423-6005

교육, 문화, 교통 등 편의 시설의 완벽한 조화
 공업녹지에 둘러싸인 청정주거단지,
 늘푸른 자연의 쾌적함이 있는 생활공간
 청계지역에 오신 여러분을 가슴을 열고 환영합니다



처음 이사를 하게 되면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한다는 것은 설레임도 있지만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 덕장교회는 청계지역에서 50여년간 청계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노인학교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을 섬겨왔고,
 공부방을 통해 가난한 학생들을 무료로 지도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처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낯선 이곳에서 당장 필요한 지역 전화번호들을 선별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공소] 의왕시청 451-3900
파출소 425-3112
의왕우체국 451-2834

청계동사무소 345-2606
의왕등기소 429-0355
보건소 345-2554

[학 교] 군포-의왕 교육청 390-1101
백운중학교 425-0013

덕장초등학교 421-2832
백운고등학교 423-2333

[병 원] 종합병원 : 선병원 340-0114
산부인과 : 임산부인과 02-503-8360
박 이비인후과 : 425-4812

오 소 아 과 : 423-5813
신 내 과 : 423-6390

[음식점] 피자 : 이탈리아피자 454-0887
치킨 : 비비큐보스 423-9252
인덕원곱창: 422-4215
안압지(유황오리) :388-8852
고두방(두부요리) : 426-3329
산마을 민속촌 : 388-8816
청계산장(한식): 426-7000

중화요리 : 비룡반점 422-2600
예외골 : 445-5181
장모집(한정식): 707-1328
삼원민심(바베큐):426-1353
채선당(샤브샤브):425-1870
부산 북 해물칼국수: 387-6024
옛날 보리밥집: 424-2515

[꽃 집] 가든포유 426-6350
천지농원 424-6332

이화꽃백화점 422-1004
포일농원 422-2316

[부동산] 허브 공인중개사 426-5501
[이발소] 청계동 복지회관 내 426-1991
[주말농장] 양지주말농장 011-9094-7749
[열쇠집] 동부열쇠 423-1188 , 두리열쇠 422-1313

장원부동산 422-8933
[금융] 농협 청계지점 426-2307
[철물점] 청계철물건재 426-3250
[이사집센터] 트랜스메니저 080-686-0024

[교회] 덕장교회 423-6005

청계동복지회관 426-1919

<비품헌금 작성서>

부 서	번호	품 명	수 량	가 격	합 계	현물약정
교 사 실	1	탁자2, 의자세트	20	100만원	100만원	
	2	//	//	//	//	
	3	//	//	//	//	
	4	탁자	3	4	12만원	
	5	탁자	3	4	12만원	
	6	기존제품 사용	♣	♣	♣	
소그 립실	1			100만원	100만원	
	2	의자, 탁자세트		100만원	100만원	
	3			100만원	100만원	
사 무 실	76	사무집기일체		200만원	200만원	
	77	교회전체 전화기일체 (키폰)		100만원	100만원	
교역자실	78	사무집기일체		200만원	200만원	
식 당	79	식 탁, 의자	45	25만원	1125만원	
	80	정수기	2	200만원	400만원	
	81	세탁기	1	60만원	60만원	
당회장실	82	의자, 탁자		250만원	250만원	
당회원휴게실	83	의자,탁자세트		100만원	100만원	
방 송 실	84	사무집기일체		80만원	80만원	
전양대실	85	피아노	1	300만원	300만원	
	86	지취대	1	20만원	20만원	
	87	의 자	60	5만원	300만원	
	88	까운장	3	30만원	90만원	
	89	약보 보관함	3	20만원	60만원	
	90	전신 거울	1	10만원	10만원	
종보기도실	91	강대상	1	30만원	30만원	
	92	십자가	1	30만원	30만원	
	93	신발장	1	20만원	20만원	
카 페	94	탁자 의자 세트	10	20만원	200만원	
	95	자판기	1	350만원	350만원	
기 타	96	아외용 의자	40	25.000원	90만원	
	97	결혼식 세트	1	200만원	200만원	
	98	시 계(현관)	1	20만원	20만원	
	99	시 계(교육부들)	30	3만원	100만원	
	100	진공청소기	3	30만원	90만원	
	101	화이트보드	3	20만원	60만원	
	102	우산포장기계	3	33만원	100만원	
	103	휴 지 통	70		100만원	
104	모니터	4	160만원	640만원	로비, 식당 등	

1. 비품 구입은 교회에서 일괄 구입함.
2. 물가변동이나 등급변경으로 인한 차액은 다른 비품의 차액과 정산함.
3. 「현금으로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자는 위의 산정된 금액만 현금.

새 예배당을 위한 헌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림을 받으리이다 (대상29:14)



대안예수교장로회
덕 장 교 회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987-3 ☎423-6005 E-mail:423-6005@hanmail.net

부서	번호	품명	수량	가격	합계	현물약정
매 관	1	음향설비	1세트	7천5백만원	7천5백만원	
			1구좌	200만원		
		전관 방송은 소망에 포함됨				
	2	영상설비	1세트	5천만원	5천만원	
			1구좌	200만원		
	3	회의의자(회의용)	충여배설 포함		6천만원	
			1구좌	30만원		
	4	강대상	1	500만원	5백만원	기증
	5	선전상	1	200만원	200만원	기증
	6	조명		2천만원	2천만원	
	7	화분대	1세트	50만원	50만원	
	8	전관방송설비	1	300만원	300만원	
	9	오르간	1	7천만원	7천만원	
	10	그랜드피아노	1	2천만원	2천만원	
	11	지휘대	1	20만원	20만원	
	12	현금함	3	65만원	200만원	
	13	필경대	3	35만원	100만원	
14	시계	1	30만원	30만원		
15	신발장(자모실)	1	30만원	30만원		
16	모니터(본당)	1	700만원	700만원		
17	모니터(자모실)	1	160만원	160만원		
예 비 산	18	음향설비	400만원	기존시설 이용, 스피커만 교체		
	19	LCD프로젝트		4백만원	4백만원	
	20	전동스크린	1	150만원	150만원	
	21	노트북	1	150만원	150만원	
	22	강대상	1	200만원	200만원	
	23	그랜드 피아노	♣	♣	♣	기존제품사용
	24	현금함	2	20만원	40만원	
	25	시계	1	20만원	20만원	

부서	번호	품명	수량	가격	합계	현물약정
귀 치 부	26	강대상	1	50만원	50만원	기증
	27	십자가	1	30만원	30만원	
	28	음향설비	1세트	350만원	350만원	
	29	LCD프로젝트	♣	♣	♣	기존제품사용
	30	전동스크린	1	70만원	70만원	
	31	노트북	1	150만원	150만원	
	32	신발장	1	30만원	30만원	
	33	피아노	♣	♣	♣	기존제품사용
	34	캐비닛	2	20	40만원	
	아 동 부	35	강대상	1	50만원	50만원
36		십자가	1	30만원	30만원	
37		음향설비	1세트	350만원	350만원	
38		LCD프로젝트	1	300만원	300만원	
39		전동스크린	1	70만원	70만원	
40		노트북	1	150만원	150만원	
41		의자	100	5만원	500만원	
42		피아노	♣	♣	♣	기존제품사용
43		캐비닛	3	20만원	60	까운장 포함
44		강대상	1	50만원	50만원	
해 고 예 비 부	45	십자가	1	30만원	30만원	
	46	음향, 프로젝트	♣	♣	기존제품사용	
	47	전동스크린	1	70만원	70만원	
	48	노트북	1	150만원	150만원	
	49	의자	100	5만원	500만원	
	50	피아노	♣	♣	♣	기존제품사용
	51	캐비닛	3	20만원	60만원	
	52	강대상	1	50만원	50만원	
	53	십자가	1	30만원	30만원	
	54	음향설비	1세트	350만원	350만원	
창 년 부	55	LCD프로젝트	1	300만원	300만원	
	56	전동스크린	1	70만원	70만원	
	57	노트북	1	150만원	150만원	
	58	의자	100	5만원	500만원	
	59	피아노	1	300만원	300만원	
	60	캐비닛	2	20만원	40만원	
영 기 아 도 부 실	61	강대상	1	50만원	50만원	
	62	십자가	1	30만원	30만원	
	63	음향설비	1세트	350만원	350만원	
	64	전동스크린	1	70만원	70만원	
	65	피아노	1	300만원	300만원	
	66	캐비닛	4	20만원	80만원	이불장 포함

◆ 교회 비품 헌물 작성서 ◆

이 름 : _____ 전 화 : _____

구 역 : _____ 직 분 : _____

* 대금 완납 예정일 : 2007년 _____ 월 _____ 일
(6월 중순 전으로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1. 위의 비품 중 선택해서 작성


*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에 문의 후 기록 바람(☎423-6005)

번호	실	품 명	수 량	가 격

2. 비품을 정하지 않고 비품헌금을 드림

작성 현금 _____ 원
(6월 중순 전으로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비품 작성 현금은 건축헌금과 혼선을 피하기 위해 봉투에 「비 품」
이라 표기 후 드리기 바람

 대간예수교장로회
덕장교회

※ 자세한 사항은 건축위원장이나 사무실 문의 바람(☎ 423-6005)

<교회건축을 위한 금식 새벽기도회 순서지>

새벽기도 참석 지침

1. 매일 1 끼식 편한 시간을 선택해 금식합니다.
2. 일찍 자며, 잠자리에 들기 전 새벽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온 가족이 함께(특히 자녀와 함께) 참석합니다.
4. 온 성도가 5일간 빠짐없이 출석합니다.
5. 교회학교 및 모든 부서가 참석합니다.
6. 차량은
 - 1) 새벽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주차합니다.
 - 2) 개인차량은 구역식구와 함께 이용합니다.
 - 3) 새벽기도 후에는 서로가 기도 할 수 있도록 5:50분 이후부터 출발합니다(미리 출발시 차량이 영킴).
 - 4) 교회 차량도 5:50분에 출발합니다.
7. 거리가 먼 분은 교회서 취침할 수 있습니다(유치부실등).

개 인 출 석 점 검 표

이름 _____ 직분 _____ 구역 _____
 ※ 총 5 회 중 _____ 회 참석

	25 (월)	26 (화)	27 (수)	28(목)	29(금)
9 월					

제 4 회 성전건축을 위한

전 교 인 금 식 새 벽 기 도



날 짜 : 2006. 9. 25(월)~29(금)
 시 간 : 매일 새벽 5 시
 장 소 : 본 당

대 원 예 수 교 장 르 회 덕 장 교 회

예 배 순 서

날 월	짜 일	찬 송	기 도	성 경	특 송	설교제목
9	25	월 40	박계천	마 21:12-14	고천	바람직한 교회
	26	화 43	도영배	막 5:25-35	관양	확신에 찬 믿음
	27	수 101	김택진	막 11:23-25	비산	올바른 기도
	28	목 260	강신준	슌 1:16-17	산본	성전을 건축하라
	29	금 246	임희규	슌 3 : 5	건축위원 원전체	하나님의 상급

참 고 사 항

1. 기도자와 찬양 순서자는 제일 앞자리에 10분전 착석 합니다.
2. 성가대 외의 모든 부서는 김명희집사님이 반주합니다.
3. 구역장은 구역식구에게 연락해 전원 참석토록 합니다.

차량 운행시간표

- 1호차: 이-마드앞(04:35)→관양동꽃집(4:40)→인덕원성당(4:41)
 2호차: 유진약국앞(04:40)→민방위교육장(4:40)→백운교(4:43)→
 대우카센터(4:45) →동우빌라(4:46)

기 도 제 목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
 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
 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
 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심판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
 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2:1-8)

1.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명하셨으니 명령에 순종합니다.
2. 이 일에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부르셨는데 잘 감당토록
3. 건축을 통하여
 건물만 세워지는 것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워 지도록
4. 온 성도가 한 마음 한뜻 되도록
5. 교역자와 건축위원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도록
6. 교회나 가정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7. 건축하는 동안 교회가 디 크게 부흥하도록
8. 건축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어 내년 6월 입당토록
9. 각자 작정한 건축헌금 넘치게 감당토록 큰 축복 주옵소서
10. 부족한 건축재정 넉넉하게 채워 주셔서
 건축 후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11. 입주하는 모든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 얻도록

참고 문헌

외국어서적

- Brueggemann, Walter, *Genesis*.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1982.
- Cassuto, Umber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Genesis, 2: From Noah to Abraham*. Jerusalem: Magnes, 1961-64.
- Craddock, Fred B., *Luke*,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Goodrick, Edward W. & John R. Kohlenberger III, Donald L. Potts & James A. Swanson, Associate Editors, *The NIV Exhaustive Concordance*. London, Sydney, Auckland, Toronto, The Zondervan Corporation, 1990.
- Fee, Gordon D., *God's Empowering Presence: The Holy Spirit in the letters of Paul*. Peabody, Massachusetts / Hendrickson Publishers, Inc., 1994.
- Fee, Gordon D., *Paul, the Spirit, and the People of God*. Peabody, Massachusetts / Hendrickson, Publishers, Inc., 1996.
- Fee, Gordon D.,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Revised edition 2014.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4.
- Frost, Michael & Hirsch Alan. *ReJesus: A Wild Messiah for a Missional Church*. Hendrickson publishers, 2009.
- McKeown, James, *Genesis*. Grand Rapids, Michigan /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8.
- McKim, Donald K.,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Theological Terms*, 2nd ed.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4.
- Morris, Leon,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Grand Rapids, Michigan /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2.
- Vanhoozer, Kevin J. ed., *Dictionary for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Company, 2005.
- Wenham, Gordon J. *Genesis 1-15*. WBC. Waco: Word, 1987.
- Williams, Wilbur Glenn. *Genesis: A Bible Commentary in the Wesleyan Tradition*.

Indianapolis: Wesleyan Publishing House, 2000.

Yeung, Maureen W., *Faith in Jesus and Paul*. Tubingen: Mohr Siebeck, 2002.

번역서적

Barclay, William. *The Letter to the Romans, Corinthians*. 황장욱 역. *바클레이 성경주석 7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서울: 기독교문사, 2009.

Barclay, William. *The Mind of Jesus*. 정용섭 역. *예수의 사상과生涯*.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Barton, Bruce B. Asimakoupoulos Greg, Farrar Jonathan, Veerman Dave. *Life Application Bible Commentary, 1 Corinthians*. 김진선 역. *LAB주석시리즈 - 고린도전서*.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4.

Barton, Bruce B. Asimakoupoulos, Greg. Farrar, Jonathan. Veerman, Dave. *Life Application Bible Commentary, 2 Corinthians*. 김진선 역. *LAB주석시리즈 - 고린도후서*.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4.

Beasley-Murray, George R. *Word Biblical Commentary Vol.36. John 1-21*. 이덕신 역. *요한복음*. 서울: 솔로몬, 2001.

de Vaux, Roland. 이양구, 김성규 역. *舊約時代の社會風習*. 서울: 기독교문사, 1989.

Fretheim, Terence E. *Exodus*. 번역위원회 역. *출애굽기*. 서울: 장로교출판사, 2001.

Freeman, James M. *Manners and Customs of the Bible*. 남송현 역. *성경 속의 생활 풍속 따라잡기 신약편*. 서울: 아가페, 1998.

Hagner, Donald A.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3B, Matthew 14-28*. 채선석 역. *마태복음(하)*. 서울: 솔로몬, 2000.

Harris, R. Laird, Gleason L. Archer, jr., and Bruce K. Waltke.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Vol. 1. 번역위원회 역. *舊約原語神學辭典(上)*. 서울: 요단출판사, 1986.

Jeremias, Joachim. *New Testament Theology*, 정충하 역. *신약신학*. 일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2.

Jeremias, Joachim. *Jerusalem zur Zeit Jesu*. 한국신학연구소 역. *예수 시대의 예*

- 류살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 Josephus. *The Jewish War. Books IV-VII*. 성서자료연구원 역. *하버드판 요세푸스 2 유대전쟁사 II*. 서울: 달산, 1992.
- Josephus. *The Antiquities of the Jew. Books 12-15*. 성서자료연구원 역. *하버드판 요세푸스 5권 유대고대사 III*. 서울: 달산, 1992.
- Keil, C.F. and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by C.F. Keil and F. Delitzsch Vol. 33, Ezekiel*. 송종섭 역. *카일·델리취 舊約註釋 33권 에스겔 (중)*.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4.
- Kittel, Gerhard. *Gerhard Friedrich.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번역위원회 역. *新約聖書神學辭典(上)*. 서울: 요단출판사, 1986.
- Klein, Ralph W. *Ezekiel*, 박호용 역. *에스겔*. 서울: 성지출판사, 1999.
- Küng, Hans. *Was ist Kirche?*. 이흥근 역. *교회란무엇인가*. 서울: 분도출판사, 1991.
- McSwain, David. *The Final Curtain*. 최석철 역. *마지막커튼*. 서울: 글마당, 2007.
- Milne, Bruce. *The Message of John*. 정옥배 역. *요한복음강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0.
- Poole, Matthew. 박문재 역. *요한복음*. 파주: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15.
- Poole, Matthew. 정충하 역. *사도행전, 로마서*. 파주: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15.
- Packer, James I. *Daily Life in Bible Times*. 노광우 역. *성서시대의 일상 생활*.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Robertson, Archibald Thomas.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 Vol. VI. the General Epistles and the Revelation of John*. 번역위원회 역. *신약원어대해설 공동서신*. 서울: 요단출판사, 1985.
- Senior, Donald. *The Passion of Jesus in the Gospel of John*. 박태원 역. *요한이 전하는 예수의 고난*. 서울: 분도출판사, 2014.
- White, James F. & Susan J. White. *Building and Renovating for Christian Worship*. 정시춘. 안덕원 역. *교회 건축과 예배 공간*.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 Wood, Leon. *A Survey of Israel's History*. 김의원 역. *이스라엘의 역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 Wood, Leon. *Israel's United Monarchy*. 윤종훈 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한국어서적

가스펠서브. *라이프 성경사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강문호. *대속죄일*. 서울: 한국가능성계발원, 1994.

강문호. *성막*. 서울: 한국가능성계발원, 1996.

강병도편저. *카리스종합주석 신약 2권, 마태복음10-19장*. 서울: 기독지혜사, 2005.

강병도편저. *카리스종합주석 구약 2권 창세기 7-15장*. 서울: 기독지혜사, 2003.

강병도편저. *카리스종합주석 구약 4권, 창세기 24-30장*. 서울: 기독지혜사, 2003.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2: 교회*. 서울: 기독교문사, 1996.

김명룡.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8.

김명수. *야고보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김세운.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서원, 2007.

김세운. *예수와 바울*. 서울: 참 말, 1993.

김세운. *요한복음 강해*. 서울: 두란노, 2002.

김소영. *현대 예배학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김지철. *고린도전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김희보. *舊約 학개, 말라기 註解*. 서울: 總神大學出版部, 1989.

민영진. *출애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박수암. *히브리서*.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박형용. *에베소서 주해*. 서울: 두란노서원, 1990.

박호용. *야웨인지공식*. 서울: 성지출판사, 1999.

배희숙. *역대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생명의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5.

- 원용국. *성막과 십계명*. 서울: 성광문화사, 1989.
- 이광순. 이용원. *선교신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이규태. *눈물의 한국학*. 서울: 기린원, 1992.
- 이 달. *사도행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 이승호. *야고보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 이정구. *교회 건축의 이해*. 과주: 한국 학술정보, 2012.
- 전경연. *고린도전서*.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1.
- 정시춘. *교회 건축의 이해*. 서울: 발언, 2004.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1.
- 제자원. *그랜드 종합주석 제12권, 에스겔·다니엘*. 서울: 제자원, 2009.
-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고린도전서 제1-9장*. 서울: 제자원, 2006.
-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고린도후서 제1-13장*. 서울: 제자원, 2006.
-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마태복음 제1-11a장*. 서울: 제자원, 2006.
-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마태복음 제11b-20장*. 서울: 제자원, 2006.
-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사무엘하 제1-10장*. 서울: 제자원, 2006.
-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사무엘하 제19-24장*. 서울: 제자원, 2006.
-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창세기 제1-11장*. 서울: 제자원, 2006.
-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창세기 제12-25a장*. 서울: 제자원, 2006.
- 제자원.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창세기 제37-50장*. 서울: 제자원, 2006.
- 조광호. *고린도전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 조병호.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서울: 통독원, 2013.
-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성경과 고대정치*.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성경 즐기*.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3.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通)신학*. 서울: 성경통독원, 2012.
- 조병호. *와우! 예레미야 70년*.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편찬. *일년일독 통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15.
-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3.
- 조병호. *통이다*. 서울: 통독원, 2009.
- 조병호. *통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5.
- 현대어성경편찬위원회. *현대어 성경*. 서울: 성서원, 2013.

논문, 잡지

- 김순환. “예배 공간의 예배신학적 의미와 실제.” 207, *교회성장*, 2010, 40-47.
- 서명수. “성막과 법궤의 기능.” 18, *구약논단*, 2005, 77-83.
- 원광기. “교회 건축의 신학에 관한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과 풀러 신학교, 1984.
- 이은석. “아름다운 교회 건축의 미학.” 207, *교회성장*, 2010, 48-55.
- 이철웅. “성전 건축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가 교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청운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박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 강의영. “국민임대단지 3곳 개발계획 승인.” (한국경제. 2003년 6월 15일).
- 유영대. “한기총 5년간 6000 교회 늘었다.” (국민일보. 2012년 1월 24일).

기타

이병철편저. *바이블렉스 9.0 DVD*. 서울: 브니엘성경연구소, 2013.

Website.

네이버 국어사전, *국어사전*. (국립국어원, 2006).

V I T A

PERSONAL DATAFull Name: Munyeoun KimPlace and Date of Birth: Bonghwa-Gun, South Korea, Mar.20, 1963Parent's Names: Dongyeol Kim and Bunnam Hwang**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Yeongju Jungang High School Youngju, Gyeongbuk, South Korea	Diploma	Jan. 15, 1982
Collegi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no 5-gil, GwangJin-gu, Seoul, South Korea	B.A	Feb. 20, 1986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no 5-gil, GwangJin-gu, Seoul, South Korea	M.div	Feb. 20, 1992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Munyeoun Kim

Name typed

May 6, 2016

Date